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7호 HYUNBULNEWS.COM 2026년 5월 6일(음력 3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공공주택 실현 위해 불교계 노력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삶을 직접 살폈다. 서울역 맞은편 언덕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에는 800여 명이 0.5~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건물 출입구와 복도, 공용 공간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쪽방을 찾아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정부 관계자, 정치인, 사회 지도층들에게 호소해 공공 임대주택 문제가 빨리 해결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기사 2면〉

글=임은호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동국대 건학위, '대학 전법' 중심으로 부상

4월 29일 5주년 기념식 개최
'지미불' 통해 사찰-학생 연결
8125명에 43억2842만원 전달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성공적'
168명서 7738명…4506% 증가
영캠프로 지난해 6700명 수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 이하 건학위)가 자타공인 '대학 전법'의 중심처로 자리매김했다.

건학위는 4월 29일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최고·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주년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5주년 성과보고와 향후 중점계획 발표로 진행됐다.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임을 강조했던 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으로 2021년 4월 29일 출범한 건학위는 불교 정신의 사회적 확산, 전문 지식인 양성, 인류사회 공헌을 목표로 교육·의료·지역·글로벌의 4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장학사업을 통한 청년불자 양성'이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137회의 전달식을 통해 총 8125명에게 43억2842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4년 시작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 사업도 동국대를 '대학 전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요인이다. 시행 초기 중앙동아리 '동불' 회원이 168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서울·WISE캠퍼스 27개 동아리 7738명(서울 5152명·WISE캠 2440명·DUICA 146명)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회원 수 4506%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9월 개최된 영캠프에서는 서울·WISE캠퍼스 학생 67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자승 스님의 발원을 이어받아 시행한 취업 박람회는 4년 연속 대학 최대 규모로 개최돼 왔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등이 매년 참여하면서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기업체 평판도 3년 연속 톱10 유지로 이어졌다.

건학위 사무처는 "대학생 전법을 통한 청년불자 양성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불교동아리 수와 참여 인원 증가뿐 아니라, 학생들이 영캠프와 연등회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불교 신행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향후 중점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중점 추진 사업 계획들의 키워드는 '청년불자 양성'으로 모아진다. 서울캠퍼스의 핵심 과제는 청년불자 육성을 위한 플랫폼 강화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건학이념 선순환 구조를 통한 장학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불교동아리 체계화와 지속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기존에 만들어진 불교동아리들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전법 특임교수를 확대하고 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영일 서울캠퍼스 건학위 사무처장은 "영캠프의 경우 기존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했으나 지난해 참여 희망자가 많아 장소가 협소했던 점을 고려해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할 예정"이라며 "목표는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 1만명 수계"라고 발표했다.

이어 "건학위 출범 5주년,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3주년을 맞은 만큼 재학생 중심의 불교동아리 활동을 졸업생까지 확장하고, 졸업 이후에도 신행과 전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청년대회 조례안 즉각 폐기"

조계종 종교편향특위, 성명 채택
4월 28일 서울시의회와 간담회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두고 종교 편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와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를 찾아 조례안의 철회와 종교 중립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와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최호정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그동안 종교계 행사 지원은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실정 법률에 맞춰 이뤄져 왔다"며 "특정 종교 행사만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은 즉각 철회 또는 폐기되어야 하며, 관련 특별위원회 역시 해체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대규모 행정·재정 지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훼손하고, 일반 국민 상식에도 반하며, 종교 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종교계 시민단체들도 종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세계청년대회(WYD) 사례를 보면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국고 지원 사례가 전무한데, 한국의 경우 과도한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의 지원 예산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6면에 계속〉

유등제로 '조세이 희생자' 기린다

관음종, 5월 9일 낙산묘각사서
대만 잠수사 빅터 씨 추모도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183명의 조선인·일본인 노동자와 이들의 유골을 찾기 위한 잠수 조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대만인 잠수사 빅터 씨를 추모하는 유등제가 열린다.

관음종(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추는 '2026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오는 5월 9일 오후 1시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등제는 84년 전 조세이탄광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스러져간 183명의 희생자들과 또 그들의 유골을 찾기 위해 자비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故 빅터 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등제에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족회 간부 및 회원들이 참여해 희생자 183명의 이름이 적힌 등을 직접 밝히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예정이다.

관음종은 이번 유등제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잠수 조사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합의한 유전자 검사의 즉각적인 실무 착수 △추가 유해 발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비와 예산 지원 △희생자들의 온전한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와 대만 잠수사 빅터 씨를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국경과 세월을 넘어 조세이 탄광의 해저 갱도 끝까지 닿기를 기원하고 고통받는 유족들의 손을 맞잡고 한일 양국 정부의 실질적인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수습 지원 모금 계좌
우리은행 (재)대한불교관음종 1006-502-377562

재적사찰 연등달기 캠페인

봉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망의 연등을 밝힙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연등 하나를 밝히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불이자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서원과 기도를 담아 밝힌 연등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마음에는 평안이
세상에는 화합의 기운이 두루 퍼지기를 발원합니다.

“주거권 보장 적극 나서겠다”

4월 24일, 쪽방촌 찾은 진우 스님
주거 실태 확인 “건강하시라” 인사
주민 120명 함께 사찰음식 공양
“공공주택 실현 위해 정부에 호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4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삶을 살폈다.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삶을 직접 살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확인한 진우 스님은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4일 오전,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22일 ‘사회적 약자 초청법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1일 ‘사회적 약자 초청 새해맞이 108배 기도행사’를 연 데 이은 연장선이다.

서울역 맞은편 언덕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은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들이 모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으로 형성됐다. 현재 800여 명이 0.5~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85%가 기초수급자며 60% 가까이가 무연고자다. 정부는 2021년 공공주택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건물주 반대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좁은 골목을 따라 이동하며 건물 출입구와 복도, 공동 공간 등을 살폈다. 이어 직접 쪽방을 찾아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60년이 넘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67) 씨의 방. 성인 한 명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서 23년째 생활하고 있는 이 씨에게 스님은 건강상태와 식사 등 안부를 먼저 물었다. 가족과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꼼꼼히 묻고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인 스님은 이 씨에게 선풍기를 선물로 건냈다. 이어 손을 꼭 잡아주며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두 번째 방문한 방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열악한 상황. 진우 스님은 문 열린 방 앞에서 겨우 김 모(77) 씨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풍기를 전달하며 “공공주택이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쪽방 현장 점검 이후에는 인근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사찰음식 공양이 이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팀이 연잎밥과 우엉들깨탕, 채소잡채, 콩고기 볶음, 도토리묵 무침, 버섯탕수이, 도라지초무침, 봄나물, 김치찜, 열무김치 등 반찬 8가지와 후식으로 과일과 떡 170인분을 준비했다.

공양에 앞서 진우 스님은 “예전부터 동자동 쪽방촌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오늘 직접 보고 많이 놀랐다”면서 “불교가 앞장서서 불편을 해결하는 데 힘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관계자, 정치인, 사회 지도층들에게 호소해 공공 임대주택 문제가 빨리 해결돼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갑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업이사는 이날 자리를 마련한 조계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자동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면서 “공공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길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선풍기 130대를 전달했다.

적행 스님 “의료비 지원 보탬 되길”

승려복지기금 5000만원 전달
강의·법회 등으로 기금 마련



〈한글경전모음집〉 등을 출간하며 문서 포교에 힘쓰고 있는 적행 스님이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 기금을 쾌척했다.

적행 스님은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강의와 법회, 출판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적행 스님은 “7~8년 전 뇌졸중을 앓아 병원 생활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스님이 많은 걸 알게 됐다”며 “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보시의 마음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운 와중에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반성한다”며 “스님들이 걱정 없이 일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부탄 마음챙김 도시 협력 기대”

부탄 총리, 진우 스님 예방 자리서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 관심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체링 톱개 부탄 총리의 예방을 받고 부탄이 건설하고 있는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는 부탄 중앙정부로부터 자체 법률, 화폐, 규정 등을 보장받는 국제적 수행·힐링 도시로, 전 세계 국가의 사찰과 명상센터, 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링 톱개 총리는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는 수행과 영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조계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도시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을 위한 대화를 앞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지운 수습기자

6·3 지방선거 후보들, 진우 스님 잇따라 예방

박수현 후보에 전통 보존 당부
김상욱 후보엔 ‘중도 지혜’ 강조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가르침을 구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예방을 받고 “불교는 K-문화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충남의 역할과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K-문화와 K-예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1700년을 이어온 불교의 전통과 민족의 정신이 맞물려 표현해낸 것”이라며 “불교적 영향을 떼어놓고는 한국문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통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스님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후대에 온전하게 전승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당연히 맡아야 할 책무임에도, 그간 스님들이 신심으로 지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그럼에도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예산은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시혜처럼 이뤄지는 측면은 아쉬움이 있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수현 후보는 전통문화 보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28일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과 중도의 지혜를 갖춰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특히 경제 발전 등 외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마음 안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감정에 이끌리면 갈등만 커진다.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아야 덜 불행하고 덜 괴롭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정신력으로 담담한 마음을 유지해야 중도의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냉철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모여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데, 언제부터인지 울산이 고립되고 배타적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잇는 연결을 통해 발전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저출산 해법, 심리 안정…불안 줄여야”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4월 28일 진우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에게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데 진력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종교계도 범종교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맡고 있다면 종교계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계룡대 홍제사 낙성…무기 녹여 본존불 조성

4월 23일, 본존불 점안·낙성법회
대웅보전 편액 종정 성파 스님 친필
진우 스님 "마음 평안 전진 기지"
법원 스님 "전쟁 업, 자비 전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4월 23일 계룡대 홍제사 대웅보전에서 낙성법회 및 본존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대표자들이 대웅보전 앞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계룡대에 군불교 숙원사업이었던 홍제사 건립불사가 마침내 마무리되며 위용을 드러냈다. 전쟁 도구를 녹여 조성한 본존불에 '전쟁의 업을 자비로 전환'하는 상징을 담은 홍제사는 50년 군 포교의 염원을 결실로 맺으며 장병 신행의 중심이자 호국불교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을 알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4월 23일 계룡대 홍제사 대웅보전에서 낙성법회 및 본존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승과 장병,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호국불교 도량의 원만한 회향을 함께 축하했다.

홍제사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호국불교 총본산이다. 2020년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 사업으로 군 장병들의 신행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염원 속에서 창건 불사가 시작됐다. 2022년 대웅보전을 비롯한 교육관 불사를 마쳤다. 이후 본존불 조성을 발원하며 불사를 이어온 끝에 이날 봉불식을 통해 도량의 마지막 불사가 원만히 회향됐다.

특히 이날 봉안된 본존불은 육군 전차, 해군 군함, 공군 전투기 등 실제 무기 부품을 녹여 조성한 철불로 전쟁의 도구를 자비와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사에 전례 없는 의미를 지닌다. 서칠교 불모가 2년에 걸쳐 완성했으며 복장으로는 나전칠기로 제작된 후령통과 인경 다라니, 연기문과 동참자 명단, 군승 40년사·50년사, 고려·조선시대 만다라와 다라니류, 육·해·공군 주력 무기 축소 모형, 그리고 전국 군사찰 불자들의 발원문이 함께 납입됐다.

대웅보전 편액은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가 쓴 법필로, 호국불교 중심 도량으로서의 상징성을 더했다.

법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무기를 녹여 부처님을 조성한 것은 전쟁의 업을 자비의 원력으로 전환하는 살아있는 수행"이라며 "홍제사가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의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장병 불자들의 수행과 신심을 격려하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한반도 평화와 국태민안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특히 홍제사가 장병들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자리 잡길 염원했다.

법문에 이어 진우 스님은 법원 스님에게 군불교 진흥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며 군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사 화주에 앞장선 이미숙 불자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 불상을 조성한 서칠교 작가에게 '군종특별교구장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찰림 재선충병, 실시간 대응으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사찰림연구소 4월 28일 토론회
한혜림 과장 "예찰 대응 핵심"

사찰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육안 예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과학적 실시간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는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찰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생태 특성과 과학적 예찰 및 방제 기술' 주제 토론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불교 문화유산의 경관과 수행 환경을 위협하는 만큼 사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첨단 방제 전략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혜림 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치명률과 전파력이 매우 높은 산림재난"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관리 이전에 방제가 핵심 활동으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한 과장의 설명이다.

한혜림 과장은 "단 한 그루의 소실이 단일 유산의 상실로 이어진다"며 "사후 복구보다는 생태 특성에 기반해 확산 고리를 끊는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Early Detection, Early Control)'가 방제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예찰이 활발하고 피해목 정보가 잘 관리된 지역은 방제 성과가 높다고 말한 한 과장은 지상·드론·항공·위성 영상 등 다양한 예찰 방식과 함께 AI 딥러닝 기반 항공영상 분석과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조기 감염목 탐지 기술을 소개했다.



대안 중 눈길을 끈 것은 감염 초기 단계에서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액 흐름 센서(Sap Flow Sensors)'다. 나무에 부착된 디지털 센서가 수분 흐름의 이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원격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재선충 감염 시 나타나는 수분 흡수 저해 현상을 즉각 포착해 피해목이 고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정규원 산림기술사가 '사찰의 재선충피해 현황',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사찰림 소나무재선충병 재난 위기'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은호 기자

조선代 부불전·요사채들 보물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지정예고 공고
조선 중후기 전각 10건 대상



조선 중후기에 조성된 부불전과 요사채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사진〉 등 부불전 6건과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요사채 4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부불전은 부처·보살을 모신 중심 불전과 이격되어 건립된 법당으로 나한전, 영산전, 원통전, 비로전 등이 있다. 요사채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전각을 의미한다. 그간 부불전과 요사채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았지만 불전과 석불, 석탑 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불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부불전과 요사채에 대한 가치조사와 발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10건의 부불전·요사채를 보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부불전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괴산 각연사 비로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순천 선암사 원통전 △순천 송광사 응진당 △경주 기림사 응진전이다. 지정 예고된 요사채로는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청양 장곡사 설선당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익산 숭림사 정혜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된 부불전과 요사채는 조선 중후기에 걸쳐 건립 및 중건된 것"이라며 "지정 예고된 부불전은 조선 후기 전통목조건축의 양식적 특징과 기법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고, 요사채 역시 사찰의 수행 및 생활공간으로 건립돼 시대에 따른 생활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불전·요사채 10건의 지정 예고에 따라 향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 문화융성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10건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동종 제13대 총무원장 지원 스님 취임

4월 24일 추대법회 봉행
"소통으로 수행 가풍 진작"



대한불교조동종 제13대 총무원장에 행묵 지원 스님〈사진〉이 취임하며 종단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짐했다. 조동종은 4월 24일 남양주 우리정사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동산양개 대선사 1157주기 헌다례재'를 봉행했다.

1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묵조선 수행가풍 진작 및 교구 활성화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교육 역량 제고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 등 3대 운영 기조를 발표했다.

지원 스님은 "종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공정하고 소외되는 이가 없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종단의 근간인 묵조선의 수행가풍을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교구를 활성화해 조동종의 위세를 다시 한번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스님은 2000년 서울 수락산 도선사에서 대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조동종 총무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우리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주어사지 안내판 수정 1년…역사 가르침 기려

전국비구니회, 4월 23일 기념행사
주어사지 역사 · 보존 학술 담론
"종교 공존 속 유산 가치 재정립"
연등 설치 · 도량 정화 현장 실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비구니회는 4월 23일 여주 주어사지 법당 터 일원에서 '다종교 시대의 진정한 가치, 역사의 가르침 주어사'를 주제로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연등 설치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주년을 맞아 의미를 점검하고 주어사지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종교 시대 속에서 전통 사찰 유적의 가치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23일 여주 주어사지 법당 터 일원에서 '다종교 시대의 진정한 가치, 역사의 가르침 주어사'를 주제로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어사지 종합안내판은 지난해까지 불교사적 가치가 배제된 채 가톨릭 중심으로 서술됐다. 이에 전국비구니회는 역사 왜곡에 문제의식을 갖고 수정 운동에 나서 지난해 4월, 이를 바로잡는 성과를 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은 미래의 삶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종교 간 화합의 상징인 주어사지는 우리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담론에서는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 1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1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종합안내판 수정은 단순한 정정 작업을 넘어 역사 인식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그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어사지의 종교 공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계와 접촉, 공존의 흐름 속에서 여러 주체의 참여와 조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교수불자연합회장은 주어사지의 보존 방향에 대해 '공동순례의 장'을 언급하며 "종교 간 갈등이 아닌 공존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정된 종합안내판에서 영상해설과 연구 논문 요약, 관계자 구설까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와 관련해 "종교유산의 해석과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으며 "종교계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공공성과 형평성,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종교갈등과 화합의 상징과 같은 주어사지에 대한 정부의 종교편향적 정책이나 특정종교 지원 행태를 감사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후 연등 설치와 도량 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현장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주어사지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한국 종교사와 사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 "치유 · 희망의 정치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화합된 세상을 염원하는 봉축탑이 국회를 환히 밝혔다.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는 4월 30일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불기 2570(2026)년 국회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봉축탑은 백제 석탑의 정수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형상화해 조성됐다. 탑 양옆에는 금강역사가 배치됐다. 이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하나임을 자각하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국가의 융성과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봉축탑은 5월 29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가슴에 새겨 국민께 힘이 되는 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4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 회향

4월 24일, 봉녕사 단일계단서
25명 스님 식차마나니계 수지
진상 스님 "삶의 이정표 세워"



조계종의 예비 비구니 스님 25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제34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이 4월 24일 수원 봉녕사 단일계단에서 회향식을 끝으로 원만 회향했다.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25명의 스님들이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하며 청정한 계맥을 잇는 출가수행자로서의 서원을 새롭게 다졌다.

이번 수계산림은 4월 21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3박 4일간 진행됐다. 수계자들은 기간 동안 습의와 강의, 각종 의례에 정진하며 계율의 의미를 체득하고 철야정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계식과 회향식은 조계종 총무원 교육국장 지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계자들은 수행자로서 청정계율을 수호하고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회향식은 유나 경암 스님이 고불식 당시 습의도감 스님에게 건넸던 죽비를 되돌려 받는 의식을 통해 수계산림의 원만한 회향을 알렸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수계는 단지 계율을 받는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서약이며,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첫 번째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축복의 순간, 하늘과 땅, 모든 존재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며 "수계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욱 깊은 수행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식차마나니계는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 2년간의 예비 수행과정이다. 계를 받은 식차마나 스님들은 이 기간 계율 실천과 수행에 전념한 뒤 구족계를 수지해 정식 비구니로서 승가의 일원이 된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테라와다 '탁발·법회' 열린다

청주 국제명상센터 시마 설립
미얀마 파욱 스님 23명 방한해
5월 23 · 26일 탁발, 24일 법회

테라와다(상좌부) 전통의 '시마(Sima, 계단)' 설립식과 대규모 탁발 의식이 청주와 서울 일대에서 거행된다. 초기불교 수행법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주 국제명상센터는 5월 23일 오후 1시 센터 내에서 테라와다 전통 방식의 시마 설립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승단(비구계)을 받는 공간을 뜻하는 '시마'를 설립하는 것으로, 초기불교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미얀마 파욱 상가 스님 23명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탁발 의식은 청주와 서울의 전통 시장에서 진행된다. 5월 23일 오전 9시에는 청주 육거리 전통 시장에서, 5월 26일 오전 9시에는 서울 망원시장에서 스님들의 행선과 탁발이 이어질 예정이다.

테라와다 전통에서 스님들은 신도들의 보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신도들은 음식과 생필품을 공양하며 공덕을 쌓는다. 금전 보시는 받지 않는다. 음식·과일·생활필수품 등을 공양할 수 있다.

법회도 이어진다. 5월 24일에는 청주 국제명상센터 다목적홀 법당에서 시마 설립 기념 법회가 열리며 다음날인 2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 마포에 위치한 대한불교진흥원 3층 다보원에서 '임종 직전의 업의 작용'을 주제로 파욱 상가 스님들의 법문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청주 국제명상센터에서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미얀마 삔우린 파욱 국제명상센터의 수석 명상 지도자인 우 꾸말라비왐사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마타와 위빳사나'를 주제로 수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청주 국제명상센터 측은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테라와다 상가의 전통 의례와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명상 수행이 관심있는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평화 위한 행진' 미국 이어 스리랑카로

4월 21~28일, 12인 순례단 대장정
보리수 묘목 이운하며 비폭력 강조



순례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깐 꽃 위를 걸어 가는 판냐까라 스님(가운데). 사진출처=AFP 통신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한 불교계의 발걸음이 스리랑카 전역을 적셨다.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스리랑카에서는 '평화의 섬 스리랑카에서의 세계 평화를 위한 행진(A Global Walk for Peace in the Island of Peace - Sri Lanka)'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 4월 22일 글로벌 불교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여러 외신들은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보순례에 대해서 특별보도했다. 이번 순례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평화 메시지를 전했던 빤냐까라(Paññākāra) 스님과 12인의 순례단이 주도했다.

21일 이른 아침 스리랑카에 도착한 순례단은 스리랑카 불교의 심장부인 아누라다푸라에 심어진 '자야스리 마하 보리수' 앞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의 직계 후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는 이 보리수에서 가지를 받아 만든 묘목과 닐라기리세야 유적에서 출토된 불사리를 직접 이운하며 걸었다. 이번 도보순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걸어가는 땅마다 뿌리 내리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더했다.

순례단장 빤냐까라 스님은 고불식에서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항상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내면의 조화를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처님 성지인 스리랑카에서 짧은 순례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순례단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순례의 의의와 소감을 밝혔다.

순례단은 22일 아누라다푸라를 출발해 담불라 황금 사원에서 첫 순례길을 시작했다. 특히 23일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캔디의 불치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스리랑카의 양대 종단인 말왓따와 아스기리야 종단의 종정스님들을 예방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캔디에서 열린 순례단 환영식에는 아마라수리야 스리랑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지 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 성스러운 순례길이 담불라에서 출발하여 부처님의 성스러운 사리와 보리수 묘목을 싣고 섬 곳곳을 누비는 동안, 스리랑카 국민 모두가 평화와 자비라는 변함없는 가치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란다"고 순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총 200km에 달하는 이번 순례길은 오는 28일 콜롬보 독립광장에서의 회향식으로 마무리됐다. 순례길에 함께 한 불사리와 보리수는 빤냐까라 스님이 머무는 미국 텍사스의 후엉다오 위빠사나 바바나 센터로 이운되어 불사리는 열흘간 미국에 공개된 뒤 스리랑카로 돌아가며 보리수는 센터에 평화와 마음챙김의 상징으로 식재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님이 만든 짜장이라 더 맛나요"

동행, '찾아가는 짜장 공양'
200가구에 법오 스님 배달도

"스님이 직접 만드신 귀한 짜장이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조 기구에 몸을 의지한 황상환(81) 어르신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방문자들을 반기며 몸을 일으켰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따끈한 짜장 도시락을 건네자 어르신의 얼굴에는 봄볕 같은 웃음꽃이 활짝 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 고소한 짜장 냄새와 함께 자비의 온기가 가득 퍼졌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하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명진)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짜장공양'을 진행했다.

이날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짜장 200인분을 점심시간 전에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량의 양파와 양배추를 기름에 달달 볶은 뒤 춘장과 특제 육수를 부어 한참을 저었다. 소스가 점차 묵직해지고 고소한 향기가 코 끝에 퍼지며 짜장이 완성됐다.

이날은 특히 법오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사회복지팀 6명이 봉사에 동참했다.

정성으로 준비한 200인분의 짜장은 도시락에 담겨 어르신들의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운 오정희(91) 할머니는 스님의 방문에 "인생 졸업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싶다"며 손을 맞잡았다.

법오 스님은 "봉사자들의 마음이 모여 어르신들께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만큼, 불교계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 자비의 손길을 넓히겠다"고 서원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조춘자 할머니가 법오 스님이 건네준 짜장 도시락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1만4천 연등’ 동국대 장엄…5개국 대사 “뷰티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심을 봉축하는 1만4000여 연등이 동국대를 장엄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9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김용현 교무부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멕시코, 태국, 스리랑카, 인도, 프랑스 5개국 대사, 대사대리, 부대사 내외가 외빈으로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밝히는 등불이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돈관 스님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중생의 어둠을 걷어내라는 가르침”이라며 “오늘 밝히는 연등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갈등과 전쟁으로 혼란 속에 있음을 상기한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나아가 온 세계에 평화의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윤재웅 총장은 봉축사를 통해 “등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며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할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과 세상으로 퍼진다”면서 “120년의 역사 속에 동국대는 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돼 왔으며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주한대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는 “오늘 동국대에 와서 아름다운 연등을 보니 세상에 평화가 내린 듯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에 와서 저와 제 아내는 불교철학과 문화를 배우고 있다.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점등식 직후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5개국 대사 등이 팔정도 광장을 탑돌이 하고 있다.

동국대, 4월 9일 봉축 점등식
돈관 스님 “각자 마음 밝히길”
멕시코 등 5개국 대사도 동참

타니 생랏 주한 태국대사는 “태국과 한국은 불교를 통해서 깊은 문화적 정신적 유대를 공유해 왔다. 양국 간의 전통은 두터운 우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존중의 토대가 됐다”며 “오늘 봉축점등식은 양국이 보유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지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 칸트 싱 주한인도대사 대리는 “2000년 전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를 향한 평화와 깨달음, 자비를 가르친 불교의 빛이 솟아올랐다. 그 빛은 인도를 떠나서 이곳 한반도까지 전해졌다”면서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교류 사례 중 하나로 동국대는 그 유산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9명의 프랑스 유학생들이 동국대에서 수학했고 18개 프랑스 대학이 동국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베르트랑 자돗 주한프랑스부대사는 “앞으로 동국대와 프랑스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돈관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점등 버튼을 누르며 캠퍼스에 1만4000 연등에 불을 밝혔다.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학생대표, 각 주한대사들은 불 밝힌 연등에 소원지를 달며 화합과 평화를 서원했다. 이어 점등 대표들은 연등을 들고 풍물패 이판사판의 사물 연주와 함께 팔정도 광장을 탑돌이 했다.

동국대 신임 이사에 우석 스님 선출

4월 28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의결
성비위 교수 2명 중징계 회부



동국대 신임 이사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4월 28일 제366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이사직을 사직한 덕문 스님의 후임 이사로 조계종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은 우석 스님(화엄사 주지)과 연규 스님(향일암 주지) 중 우석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1997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특수교육학 전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문화재학 전공)을 수료했다. 제14·17·18대 중앙종회의원, 동여수노인복지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구례 사성암 주지, 화엄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화엄사 주지,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법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도 이뤄졌다. 새로 감사 임기를 시작한 재안 스님은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덕문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위원으로는 진화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덕문 스님의 사직과 도림 스님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개방이사추천위원에는 각각 성화 스님과 법성 스님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성추문으로 문제가 된 문화유산학과 A교수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B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한 △정관 변경 △정관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 △2025회계연도 각 급기관 결산 승인 △학과·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수증)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건학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연등 1만4000개를 학내 전역에 걸었다. 점심공양 전에 이사진들이 소원등을 달아주셨는데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4월 29일은 건학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5주년이 되는 날로 건학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가 도출됐다. 동국대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를 재밌게” 동국대, 첫 불교동아리 박람회

16개 불교동아리 부스 홍보
단주 만들기, 목탁 체험 인기


박람회장을 찾은 스님과 인증샷을 찍는 학생들.

16개 동국대 불교동아리를 홍보하고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박람회가 열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8일 팔정도 광장에서 첫 불교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팔정도 광장에는 16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부스와 목탁 체험, 단주 만들기, 연등 만들기 등 프로그램 부스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목탁을 직접 쳐보며 울림, 내림 목탁 등을 스님의 지도 아래 배워갔다. 한 알 한 알 나무알을 꿰어 단주를 만들며 시험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사장 스님이 쏜다’ 부스에서는 2행시를 짓고 부처님께 합장 삼배를 올리면 커피가 제공됐다. 스님과 합장 인증 샷을 찍는 ‘스님을 찾아라’ 부스도 인기가 높았다.

16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들은 자체 제작한 키캡 굿즈와 스티커, 간식 등을 학우들에게 제공하며 동아리를 홍보했다.

학생들의 호응도 높았다. 임보민(경제학과 23학번) 학생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어제 잠을 잘 못 자고 생각이 혼란스러웠는데 단주를 만들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사라졌다”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생홍보대사 ‘동감’으로 활동 중인 김민지(통계학과 24학번) 학생과 박현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5학번) 학생은 직접 연등행렬에 참여할 팔각등을 제작하며 봉축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민지 학생은 “직접 만든 연등으로 행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어제 소원등을 달았는데 가족과 사랑하는 주변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박현수 학생은 “연등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은데 학교 곳곳에 걸린 연등들도 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소원등을 조만간 걸 예정인데 학점이 잘 나왔으면 한다는 소원을 쓸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중국 4대 불교성지

지장도량(구화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관음도량(보타산) 3박4일 ▶동참금 : 13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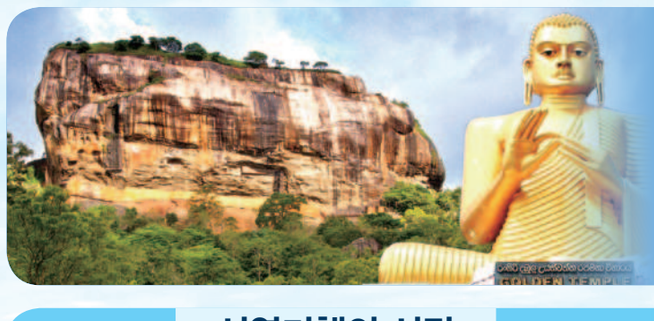


보현도량(아미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문수도량(오대산) 3박4일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서역기행의 시작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법문사-맥적산석굴-수렴동마애불-란저우-돈황(명사산, 막고굴)-투루판(베제클리크 석굴, 고창고성)-우루무리(천산천지)-서안-인천
▶동참금 : 문의
★국내선 2회+고속열차 1회로 편안한 일정★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 / 11월 4일 / 11월 11일 / 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세계청년대회와 공적 공간 사유화, 이대로 좋은가

특별기고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1년 뒤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WYD)'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985년 유엔(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해'를 기점으로 교왕청이 주도하여 시작된 이 대회는 오늘날 천주교 최대의 국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종교 단체가 자발적으로 치르는 축제에 왜 다른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유난스럽게 반응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 공동체의 공적 자산과 역사가 어떻게 특정 종교의 전유물로 변질되고 있으며, 국가의 세금이 그 과정에 어떻게 투입되는가에 대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다.

권력자 흔적 남은 공공장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 속의 상징적인 장면 하나를 복기해보자. 청(淸)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건륭(乾隆)제가 머물며 마셨다는 샘물 곁에는 직접 쓴 '용정(龍井)'이라는 글씨가 비석에 새겨졌고, 그 권력자의 흔적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장소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전제군주시대에는 통치자의 발자취가 곧 역사의 정점이자 장소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최고 권력자의 호나 이름을 딴 표지석과 기념비가 공공장소 곳곳에 세워졌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감리교 장로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휘호를 사찰 현판으로 걸어야 했던 일들이 그 증거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권력자나 집단의 사적인 흔적을 공공의 공간에 강요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이다.

'성지' 된 해미읍성과 광화문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흔적 남기기'와 '공적 공간의 사유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이다. 해미읍성은 전남 순천 낙안읍성, 전북 고창 모양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해안 지역의 국방과 행정을 책임졌던 소중한 민족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2014년 교황이 방한하여 '아시아청년대회'를 집전한 이후 이곳의 위상이 갑자기 뒤집혔다. 천주교계는 이곳을 '해미국제성지'라 선포했고,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천주교가 요구하는 사업을 전폭 지원했다. 이제 해미읍성은 조선의 국방 역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천주교의 순교 성지이자 아시아청년대회 개최지로만 각인되고 있다. 민족의 공공 역사가 특정 종교의 서사 아래 가려지고 사유화된 전형적인 사례다.

서울 광화문광장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4년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이 열렸던 곳이라고 새긴 대형 구리 표지판을 광장 바닥에 박아 놓았다. 수백 년간 이어온 우리 민족 역사의 중심지가 단 며칠간의 행사와 교왕 방문이라는 짧은 기록 때문에 특정 종교의 '성지'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올바른 역사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 행정의 최소 개입' 원칙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고 엄중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세계 어느 민주 국가가 특정 종교의 행사에 우리 정부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역대 세계청년대회 개최국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브라질 등 대부분 천주교가 국교와 다름없거나 인구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나라들이다. 주최 측이 2027년 서울 대회를 '비(非)기독교 국가 최초'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나라들조차 우리처럼 '특별법'까지 동원해 정부가 앞장서서 판을 깔아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잘 봐야 한다.

과거 호주 시드니나 미국 덴버, 독일 쾰른 등지에서 열린 대회 당시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와 언론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범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감시했다. 정부의 역할은 오직 대규모 인파에 따른 교통안전과 응급의료 등 시민 전체의 안녕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국한되었을 뿐이다. 행사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주최 교구의 자부담과 참가자 등록비, 그리고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종교 행사에 범정부 기구 구성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종교적 정체성이 뚜렷한 행사의 운영비 자체를 국고로 지원받기 위해 '특별법'을 논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광경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행정 지원'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국가가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에 직접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다.

더욱 기막힌 것은 우리 정치권의 대응 방식이다. 당초 국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종교 편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살짝 바꿔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대회 주최 측인 천주교회 역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세계 청년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라며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때는 "종교를 초월한 인류 평화와 청년의 축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질을 가린 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거나 불교를 비롯한 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천주교 신자는 전체의 약 10% 남짓이다. 이런 다종교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를 마치 국가의 주요 사업인 양 둔갑시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천주교 인구가 60%를 넘는 스페인이나 브라질과 비교해 볼 때, 10%의 남짓 되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정부 지원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회 이후의 풍경이다. 해미읍성이 겪은 진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2027년 대회가 끝나면 서울의 광화문은 조선의 심장이 아니라 '교왕이 전 세계 청년들과 미사를 집전한 성지'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 충청권의 수려한 산천 곳곳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지고 동판이 박힐 것이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순례 코스'를 조성하며 우리 국토의 공적 공간을 특정 종교의 영토로 편입시킬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종교 권력에 굴복하며 '적극 지원'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색내는 그 '돈'은 정치인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높은 물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전 국민이 땀 흘려 벌어 낸 소중한 세금이다. 우리 세금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우고 특정 종교의 성지화를 돕는 데 쓰이는 이 거대한 모순을 우리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 · 상식 지키는 감시자 돼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종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요구일 뿐이다. 천주교는 천주교답게 스스로의 힘과 신자들의 헌신으로 행사를 치러야 마땅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종교의 대변인 역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역사는 결코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나 독점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27년 대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서슬 퍼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이름으로 새어 나가는 세금을 철저히 감시하고, 성지화라는 명목으로 지워지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는 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미읍성 내에 조성된 성지화 조형물. 사진 제공=조계종

1면에서 이어짐

청년대회 지원 반발…"강력 대응" 예고

'정교분리 위배' 조례 문제 제기
서울시의회 "서울시 지원 진행"

특히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회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종교 편향적 지원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공교육 자원 활용은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국제 행사를 명분으로 특정 종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유린하는 몰지각한 처사"라며 △조례안 즉각 폐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즉각 해체 △공공정책의 공정성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회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문화·관광 행사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 제정과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시의회는 "행사에 국한된 한시적 조례안 대신 최근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일반적인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청년대회의 주요 일정이 미사 등 종교의식으로 구성된 종교행사이고,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종교편향특위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을 비롯해 위원 탄보·상원 스님과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일문 스님, 박광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정태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표, 황경훈 우리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과 김형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경석 정책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세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9~5/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2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불광출판사
3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4	마인드 리셋 반야심경	홍우	오픈업
5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6	고우 스님 강설 육조단경	고우	조계종출판사
7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정원규 편역	불광출판사
8	스님의 호흡법	전채연	황금테고리
9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10	A monk's Reply to Everyday Problems (야단법석 영문판)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무비 스님의 천수경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3	맛지마니까야(4)	대림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차와 클래식의 공명, 포시즌	이상철	차와문화
5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6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7	요가 교수법	곽미자/김성홍 감수	한국요가출판사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10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사찰 노거수가 전하는 법문



역사를새긴 나무, 수행을품은 숲
이학송 지음
보민출판사
1만6800원

전국 42곳 사찰의 숲과 나무 기록
노거수에 깃든 역사와 공동체 기억
"무상·연기 가르침 전하는 유산"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청도 운문사의 처진소나무. 수령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운문사 스님들은 이 나무를 '조실 소나무'라 부르며 해마다 삼월삼짇날 막걸리를 물에 타 뿌리 둘레에 뿌려주는 등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다. 사진 출처=국가유산포털

청도 운문사 앞뜰에는 처진소나무 한 그루가 작은 동산처럼 펼쳐져 있다. 높이 약 9m, 수령은 5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가지를 사방으로 드리워 푸른 언덕을 연상케 한다. 운문사 스님들은 이를 '조실 소나무'라 부르며, 해마다 삼월삼짇날이면 막걸리를 물에 타 뿌리 둘레에 뿌려주는 등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다.

천안 광덕사에는 '국민 간식' 호두과자의 기원을 품은 수령 400여 년의 호두나무가 있다. 고려 말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유청신이 묘목을 들여와 심었다는 이 나무는 오늘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찰의 노거수(老巨樹)는 지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 가내려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 서귀포 선덕사의 구실잣밤나무는 제주 4·3의 참혹함을 견뎌냈고, 1980년 선덕사 화재에서도 살아남았다. 이후 진행된 중창불사는 수령 200여 년의 구실잣밤나무를 중심으로 진행돼 여법한 새 도량을 이뤘다.

'숲사찰'로 유명한 부산 홍법사는 풍부한 수종과 수량을 자랑한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관 뒤편의 푸조나무는 개산 20주년을 맞은 2023년 인근 마을 주민의 기증으로 이식됐다. 수령 400여 년에 이르는 푸조나무가 도량의 중심축을 이루며 공동체의 원력을 드러낸다.

사찰 노거수는 각각 하나의 '살아 있는 역사서'다. 〈역사를 새긴 나무, 수행을 품은 숲〉은 이학송 전 교법사(생명의숲 전문위원)가 사찰 노거수를 직접 찾아다닌 기록이다. 지금까지 답사한 100여 곳 중 42곳 사찰의 숲과 나무를 담았다.

앞서 살핀 운문사의 처진소나무와 광덕사의 호두나무처럼, 나무 한 그루에는 한 사찰의 기억과 공동체의 정서가 응축돼 있다. 저자는 바로 그 응축된 시간을 읽어내는 데서 글쓰기를 시작한다. '나무의 시간'을 읽어내기 위해 저자는 설명하지 않고 경청한다. 나무를 둘러싼 시간의 결을 따라가면서 나무가 서 있는 자리,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 반복되어 온 의례와 기억을 층층이 쌓아 한 편의 서사를 이룬다.

역사적 의미 외에 생태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노거수는 자연의 변화를 가장 오래 기록해 온 존재다. 나무의 몸에 남은 상처와 생장의 흔적은 인간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증언한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꾸준한 관찰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메시지 대신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학송 생명의숲 전문위원은 10여 년 전부터 사찰 노거수를 찾아 기록하고 있다. 사진=임은호 기자

나무는 무상과 연기의 이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다. 수백 년을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홀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토양과 물, 햇빛과 인간의 손길 속에서 유지된다. 저자가 나무를 수행자에 비유한 것은 이러한 존재 방식 때문이다.

저자는 "사찰의 노거수는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라며 "스님 지팡이 설화 등의 보호장치를 가진 나무, 그 시대 사람들이 나름의 사연으로 기념식수한 나무는 살아 있는 역사 문화재"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한 그루의 나무가 베푸는 공덕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의 종말은 순식간"이라 경고하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란다면 눈으로 꽃만 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나무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제6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담마로드'

이석준 조계종 포교사 작품
"불교문학으로 포교 서원"
5월 24일 운문사서 시상식

제6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이석준 조계종 포교사(법명 송운)의 소설 '담마로드'가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담마로드'는 평범하게 살아가던 부부가 하나뿐인 외아들의 자살 후 깊은 절망과 허무, 복수심에 빠졌다가 불교를 만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부부는 아들 친구들과 일본의 신수대장경, 스리랑카의 패엽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을 찾아 떠나는 '담마로드' 탐방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새긴다.

남지심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작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남편과 아내가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여 진리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서 "무겁지 않은 필체로, 절망에 빠졌던 부부가 불교에 귀의하는 전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석준 포교사는 "물질 만능주의와 탈종교화로 불자들이 급감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순수한 불자들이 고귀한 불법을 만나 끝없는 고통의 세계를 극복하고, 나와 남을 위하는 대승의 보살로 성장하는 이 소설은 불교문학으로 포교하고 싶은 저의 서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포교사는 2022년 태고종이 개최한 제1회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바즈라체티카'로 가작 입상하며 불교문학의 길에 들어섰다. 2014년부터 남양주 봉선사 신도이자 포교사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법계문학상은 평생을 비구니 승가 교육과 권익 증진에 매진한 청도 운문사 회주 법계 명성 스님이 불교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여수령 기자

손으로 쓰는 마음공부



스님의 필사책
정운 스님 편저
유노북스
2만2000원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이 멀 듯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의 밤길이 멀고 험하다."
–〈법구경〉 중에서

〈법구경 마음공부〉, 〈부처의 인생 조언〉 등으로 출판계에 불교 열풍을 일으킨 정운 스님(대승불교연구소장)이 엮은 필사책이다. 〈법구경〉 〈숫타니파타〉 〈아함경〉 〈금강경〉 등에서 고르고 다듬은 100구절을 담았다.

총 5개 장에서 탐욕과 번뇌로 흐려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자비와 용서로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법,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등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각 장 사이에 정운 스님의 마음 에세이 10편도 수록했다. 마음공부와 관련된 짧은 경구를 따라 쓰다 보면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정운 스님은 "경전 내용을 베껴 쓰는 사경(寫經)은 20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수행법"이라며 "이러한 필사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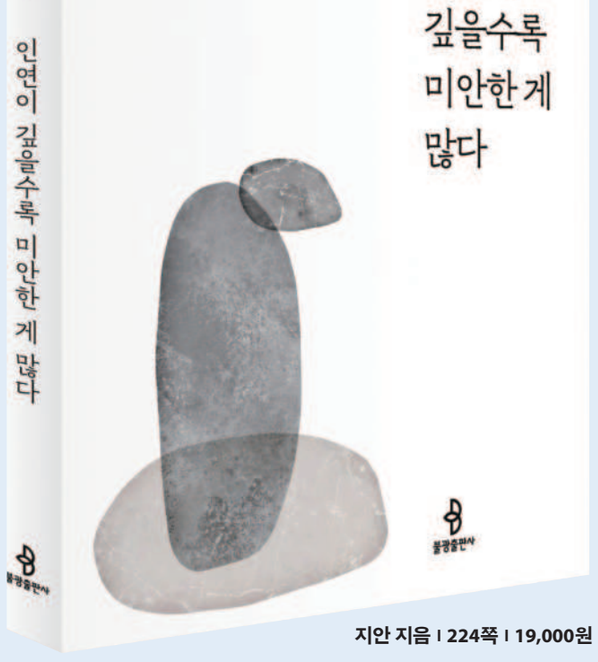
해 뜨면 눈부시게 행복하고
별 뜨면 조용하게 반짝이는 삶

"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말보다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서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

"나는 삶을 '오솔길 인생'이라 부르고 싶다. 오솔길에서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혹여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면, 언제든 오솔길로 들어와 보길 권한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잊고 있던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 지안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대강백 지안 스님의 한적한 행복!

지안 지음 | 224쪽 | 19,000원

‘통도사’ 전통·현대 아우를 문화공간 첫 삽

4월 24일, 건립 기공식 개최
유네스코 권고 따른 후속조치
수행환경 보존과 편의 제공
306억원 투입, 2027년 말 완공

이도경 부산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총림 통도사가 4월 24일 시삽으로 문화공간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방문객 편의와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통도사는 4월 24일 제1주차장에서 ‘문화공간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대중 스님,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영석 양산시 국회의원, 김신호 양산시장대행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원만 회향을 발원했다.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순례공간과 문화·편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사찰 고유의 수행 환경을 보존하고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성수기 방문객 몰림 현상을 완화하고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주목된다.

현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기간이 길어졌지만, 더욱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문화공간과 통도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기관과 사부대중의 원력과 협력으로 시작된 불사인 만큼 원만 회향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윤영석 국회의원, 김신호 양산시장대행도 문화공간 건립을 축하하고 경남도와 양산시 및 관계 기관이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과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건립 계획에 따르면 하북면 지산리 일대 9990㎡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연면적 3229㎡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인근 5373㎡ 부지에는 연면적 1038㎡ 규모의 편의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방문객을 위한 휴게 및 문화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찰 내부의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2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중앙투자심사,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왔다. 2023년에는 사업부지 및 건축계획 변경 후 국가유산청의 원안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5년 건축 허가를 취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의 최종 설계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심의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문화공간은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도사는 이번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세계유산 사찰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수행과 참배 중심의 전통 도량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팔만대장경 호국정신 미래 전승”

제66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4월 24~25일 정대불사 봉행


해인사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개최한 ‘제66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기렸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제66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시대 몽골 침입이라는 국난 속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의 호국정신과 선현들의 원력을 계승하고, 오늘날 국민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24일에는 인경 체험, 선장본 제작 체험,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컬러링 체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성보박물관에서는 주지 혜일 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이운행렬과 봉찬 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철야기도가 봉행되며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정진의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탑마당에서 법석이 열렸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념사에서 “팔만대장경은 국난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원력의 결실”이라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되살려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팔만대장경은 중생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지혜의 가르침”이라며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으로 실천할 때 대자비와 대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했다.

법요식 후에는 ‘제2차 제11회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가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오후에는 화엄경 독송과 정대요잡, 팔만대장경 공덕주 헌다례, 화엄시식, 소전 및 회향 의식이 이어지며 정대불사의 의식이 여법하게 마무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상·해운대·광복로 원도심에 ‘자비의 등’

사상 · 해운대불교聯, 봉축 점등
광복로연등문화제 5월 25일까지


해운대구불교연합회의 봉축 점등식 모습.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 주요 도심이 화사한 연등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 스님)는 4월 24일 사상 르네시떼 광장에서 ‘석가탄신일 봉축 점등식’을 열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회장 성문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밝히는 이 등불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전하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4월 26일 구남로 특설무대에서 ‘불기2570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계 곳곳의 전쟁 등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자비의 빛이 닿아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광복로연등문화제봉행위원회(위원장 하림 스님)가 주관하는 ‘2026 광복로연등문화제’는 4월 22일 개막해 오는 5월 25일까지 34일간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열린다.

현재 광복로 시티스폿에는 8.5m 높이의 국보 ‘중원사지 7층 석탑’ 대형 전통등과 1500여 개의 LED 거리 연등이 불을 밝혀 화사한 봉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월 9일에는 점등식과 연등행렬이 진행되며,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채로운 ‘봉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연꽃 컵등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환경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청보리밭서 피어난 ‘문학인 꽃축제’

4월 25일, 전국문학인 꽃축제
성파 스님 “문학, 정신 영양제”


특설무대에서 ‘제16회 전국문학인 꽃축제’를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이 10만 평 규모의 청보리밭을 무대로 전국의 문학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열었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서송 스님)과 전국문학인꽃축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아)는 4월 25일 장밭들 운동장

이날 행사는 제14회 한국꽃문학상 시상식과 제24회 들꽃축제, 제8회 전국문학인 및 시민 백일장을 아우르며 한층 다채로운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16번째 꽃시집 〈작고 예쁜 꽃잎처럼〉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려 풍성함을 더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운암 감원 서송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정영자 명예운영위원장(문학평론가),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선아 운영위원장, 양산시 및 시의회 관계자, 전국 문학인과 시민이 참석했다.

종정 성파 스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바른길을 알려주는 훌륭한 수단이 바로 문학”이라며 “우리가 음식을 먹어 체력을 유지하듯, 문학은 정신 건강을 위한 영양제와 같다. 앞으로 문학을 더욱 숭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14회 한국꽃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418편의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17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대상은 이경주 시조시인(창원)의 작품 ‘복수초’에 돌아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자유치원 100년 역사 조명 전시

‘우리는 잎트는 조선의 꽃’
마산박물관서 8월 30일까지



내년 개원 100주년을 앞둔 창원 정법사 대자유치원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산박물관에서 열린다.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은 4월 28일 년 기획전 ‘우리는 잎트는 조선의 꽃’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최근 대자유치원 기록물 8건 31점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는 8월 30일까지 계속된다.

1927년 5월 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서 개원한 대자유치원은 올해 입학 100회를 맞았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유치원이다. 전시는 ‘일제 강압의 시기를 견디다’, ‘배움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한 마음’, ‘결국, 봄’ 등으로 구성돼 시대 흐름 속 대자유치원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체험 프로그램 ‘광복의 조각, 큰 물결을 이루다’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이 전시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자유치원 이사장이자 정법사 주지인 광우 스님은 “대자유치원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던 소중한 도량”이라며 “이번 전시가 그 정신을 되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자장율사 다맥 잇는 ‘햇차 헌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올해 첫 햇차를 부처님 전에 올리며 1400년을 이어온 선차(禪茶) 정신을 되새겼다. 통도사는 4월 27일 국제템플스테이관 옆 다원에서 ‘차 제다 및 헌공의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스님들이 직접 차밭을 가꾸고 찻잎을 따서 제다해 부처님께 올리고 대중이 나누어 마시는 이 모든 실참(實參)의 과정이 곧 수행이자 우리 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통도사 다원에서 성파 스님(오른쪽)과 율주 덕문 스님이 햇차를 수확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명 대사 춘계 향사 “호국 정신 계승”

4월 23일 밀양 표충사 사당서
진각 스님 “유물 복원할 것”



사명 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을 기리는 춘계 향사가 봉행됐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4월 23일 표충사(表忠祠) 사당에서 ‘제565회 사명 대사 춘계 향사’를 봉행했다. 표충사 향사는 서산·사명·기허 대사를 기리기 위해 조선 영조 대에 시작된 국가 제향이다. 불교 의례와 유교 의례가 함께 진행되며 봄, 가을에 열린다.

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명 대사 추모 의례는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절을 기리기 위해 불교와 유림이 함께 이어온 전통”이라며 “오늘날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 대사 유물 복원 불사를 통해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참석 대중은 사명 대사와 호국 성사들의 공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사명 대사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KBS 1TV ‘역사스페셜’의 ‘사명 대사, 백성을 지키다(가제)’ 편이 5월 24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혜명사, 지장참회 천일기도 회향

4월 25일 공승법회 봉행



김해 혜명사 사부대중이 지난 3년간 이어온 지장참회 천일기도를 마치며 공승법회를 봉행해 수행의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정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김해 혜명사(주지 혜명 스님)는 4월 25일 ‘지장참회 천일기도 회향 및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혜명 스님은 “간절했던 지장참회기도가 원만히 성취돼 그 기쁨을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화엄경 사경기도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환희로운 정진 속에서 법향 가득한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화엄승가원은 혜명사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천일기도를 원만 회향한 스님과 신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화엄승가원 종정 자인 스님은 “사람의 몸은 덧없고 무상하지만 수행과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며 “걸림 없이 사는 삶과 공덕을 쌓는 길이 곧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의 봉축점등식, 여수불교사암연합회의 점등법회, 강릉불교사암연합회의 봉축탑 점등식, 대구불교총연합회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점등식,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의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지혜·자비 등불, 전국 곳곳서 불 밝히다

전국 불교단체,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봉행

홍승도 · 양행선 · 조동제 유재상 · 김선행 · 이동격 지사장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전국 불교단체들이 봉축점등식을 열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호 스님)가 용인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을 4월 25일 용인시청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가 공동 주최했다.

회장 정호 스님은 점등사에서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처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겨야 한다"며 "갈등과 대립, 분열과 분별을 딛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용인 곳곳을 밝히게 될 연등의 빛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를 밝게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경우·연수 스님)는 4월 25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전북불교의 중흥과 지역사회 상생을 기원하는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공동봉축위원장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은 봉축사를 통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세상은 평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화합의 길이 열린다"고 당부했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축사에서 "오늘 밝히는 등(燈)은 마음속 탐진치 삼독을 걷어내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등된 기원탑은 익산 미륵사지 동탑의 5분의 1 크기로 전주 한지를 사용해 제작됐다. 사부대중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주제를 외치며 점등 버튼을 눌렀다.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 속에 연등을 들고 첫 마중길을 돌며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했다.

순천불교연합회(회장 효광 스님)는 4월 26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순천 연등회 &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봉축행사는 4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통등 만들기 콘테스트, 축하무대, 보물찾기 및 체험 프로그램, 법요식과 제등행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며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효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순천이 복지와 교육,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교는 연대와 공감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쉼터이자 마음 돌봄의 공간이 되겠다"며 "어려운 이웃과 청년들을 향해 자비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는 4월 29일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과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법회는 용문사 신도들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봉축법어, 봉축사, 발원문,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여수시청 앞 로터리에 조성된 봉축탑 점등이 봉행됐다. 봉축탑은 미륵사지 9층 석탑을 형상화해 조성됐다.

연합회장 연규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의 탄생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우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 해탈과 평등을 이루라는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불자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24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북구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관음사·증심사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봉행사, 봉축사, 축하공연, 점등식,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한지로 재현한 성덕대왕신종에 불을 밝히고 북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발원하는 탑돌이를 펼쳤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지만 이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비를 확산할 때 비로소 화합과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설암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5일 강릉 옥천오거리 광장에서 '2026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릉불교사암연합회 고문 청우 스님은 법문에서 "불안한 정세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며 "오늘 밝힌 봉축탑을 보며 늘 부처님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4월 24일 속초광장에서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다. 설악산 자락을 배경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관광객 등 800여 명이 동참해 자비광명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하심하는 자에게 만 가지 복이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탐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 놓으면 복이 절로 찾아 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설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이사장 선광 스님)는 4월 25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점등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부대중과 시민들이 함께한 이날 점등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봉행사, 발원문, 봉축사, 법어, 점등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대형 석가탑 형상의 장엄등이 설치돼 점등과 동시에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며 대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점등식에서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이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당부했다. 선광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밝히는 등불이 곧 세상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빛이 된다"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지봉 스님)는 4월 22일 영천강변공원 분수광장에서 '영천연등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연합회장 지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치유, 화합, 발전'을 강조하며 "오늘 밝히는 이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갈등을 씻어내는 '치유의 등불'이자 서로를 인정하는 '화합의 등불'"이라며 "연등의 온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전의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총무국장 선웅 스님이 대독한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준 사건"이라며 "고통의 원인과 극복의 길을 밝힌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정덕 스님·법주사 주지)는 4월 29일 청주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정덕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금은 세계와 사회, 나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종교가 하나 되어 국민과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로,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할 때 더욱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장 정덕 스님과 부회장 각연 스님,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진 스님, 지역 사암연합회 회장 스님들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신병대 청주시장 권한대행, 송재봉·이강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덕 스님)는 4월 25일 부여경찰서 앞 로터리에서 연등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자비와 지혜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점등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해 합장 기도와 아기 부처님 봉축등 점등으로 이어졌다.

회장 정덕 스님은 점등사에서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며 자비의 상징"이라며 "도심 속에서 밝힌 이 불빛이 서로를 향한 배려와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 보광사 '예인 장홍심' 위패 봉안

4월 25일 지장전서 봉행
"잊힌 예인 장홍심 재조명"



속초 보광사는 4월 25일 지장전에 장홍심 예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헌무 공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보광사 회주 석문 스님과 장홍심무용연구회 최선일 · 이지현 공동회장, 무용가 이철진 씨가 위패를 지장전에 봉안하는 모습.

근현대 전통춤의 명무(名舞) 고 장홍심 예인을 기리는 위패가 속초 보광사에 봉안됐다.

속초 보광사(회주 석문 스님)는 4월 25일 지장전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홍심 예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헌무 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석문 스님을 비롯해 일광 스님, 민호 스님의 집전으로 최선일 동북아미술연구소장(장홍심무용연구회 공동회장), 이지현 장홍심무용연구회 공동회장, 이철진(한영숙류 승무 춤꾼), 이용덕(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송미숙(국가유신진흥원 예술단 감독) 등 무용가 후학들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석문 스님은 "구국 항일 의승들의 원력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최선일·이지현 장홍심무용연구회 공동회장은 "바라승무와 검무를 독자적 예술로 완성했음에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장홍심 예인을 부처님 품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보광사 석문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후학들은 흩어진 기록을 발굴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패 봉안식에 이어 행장 발표, 장홍심 일대기 봉정식과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에서는 이철진의 살풀이, 이용덕의 함흥검무, 송미숙의 바라승무가 펼쳐져 장홍심 춤의 맥을 되새겼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당 원행 대종사 49재 엄수

4월 29일 월정사 적광전서
500여 대중 "속환사바" 발원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월정사 선덕 자광당 원행 대종사의 49재 막재가 4월 29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원로회의 부의장 보선 대종사,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대종사, 전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지현 스님, 나눔의집 대표 세영 스님(수원사 회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원행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모든 일에 물러섬이 없으셨던 스님이셨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 모두가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추모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보선 스님은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바른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한다. 스님은 속히 사바세계로 다시 오시어 '월정사 멍청이' 노릇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추도사를 대신했다.

문도를 대표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스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해 주신 종단 어른 스님들과 종단 스님들, 본말사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대산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스님을 기리며 문도들은 못다하신 원력을 잘 받들고 이어가 조계종풍이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천안 고불사, 장애인단체에 자비 나눔

4월 29일, 쌀 1000kg 전달



천안 고불사(주지 혜월 스님)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고불사는 4월 29일 경내에서 백미 20kg 50포, 총 1000kg을 전달했다.

주지 혜월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이 모인 이 쌀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이산 탑사 병오년 산신대재

4월 25일 경내 특별법단서



진안 마이산 탑사는 4월 25일 경내 특별법단에서 산신대재와 봄 천지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와 (사)붓다봉사단은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을 받아 이웃사랑 백미 10kg 300포(3000kg)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봄 수계법회

4월 25일, 650명 동참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회주 우학 스님)가 4월 25일 옥불보전에서 '불기 2570년 금강계단 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 10개 도량과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동참한 불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해 재가오계를 수지하며 수행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별님, 여래가 되다

장지명 불화 작가 개인전
6월 14일까지 순창미술관
'칠성신앙' 현대적 재조명
불화 작가 단체전도 열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지명 작가의 불화 '아름다운 날들'.

전통 불화 속 칠성신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북 순창공립미술관은 5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장지명 불화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여래가 된 별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칠성신앙의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새기며, 신행과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발원의 마음을 조명한다.

칠성여래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며 중생의 수명과 복덕을 관장하는 존재로 아주 오랜 세월 불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민간의 칠성신앙과 결합돼 가족의 안녕과 자손의 평안을 기원하는 생활 속 신앙으로 깊이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옛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려두고 북두칠성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올리던 모습을 중요한 서사로 삼는다. 맑은 물 위에 비친 별을 바라보며 올리던 기도는 곧 발원의 수행이었으며, 그 마음이 모여 별이 되고, 다시 여래의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상징적 흐름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나무, 비단, 옻칠, 자개, 석채 등 전통 재료와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엄함 속에서도 따뜻한 염원의 정서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불화를 단순한 예배 대상이 아닌, 수행과 발원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방편으로 마주하게 된다.

장 작가는 "온 세계가 깃들어 있듯이,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 또한 이미 지혜와 자비를 품고 있음을 전하려 했다"면서 "부처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를 이어온 어머니들의 염원과 기도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피어 있는 불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근 섬진강미술관에서는 현대 불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단체전 '염원전'이 열린다. 두 전시는 모두 장지명 작가의 총괄 아래 기획되었으며, 전통 불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오늘날 불화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염원전'은 수행과 발원의 마음을 각기 다른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가들이 참여하여, 불화가 지닌 신앙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가 어떻게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동시 전시는 한국불교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칠성신앙과 발원의 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도와 공동의 염원이 어떻게 시각예술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관람객들은 두 공간을 통해 전통과 현대, 신앙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단체전 역시 5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AI시대, 인간 의식 본질 논의한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5월 16일 봄 학술세미나

AI시대, 인간 의식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5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줌(ZOOM)으로 '인공지능, 불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속, 인간 의식의 본질을 논의하고 불교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불교의 역할(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 △지혜소설: 동서양 지혜 전통과 인간-AI의 공진화(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인공지능에게 듣는다: 현대인을 위한 초기불교(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상담학과 교수)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알고리즘은 마음을 만질 수 있는가?: 디지털 치료제와 AI 심리치료의 가능성과 그림자(전봉희 창원 마음과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의식, 인공지능, 무아의 뇌과학(조철래 마음공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발표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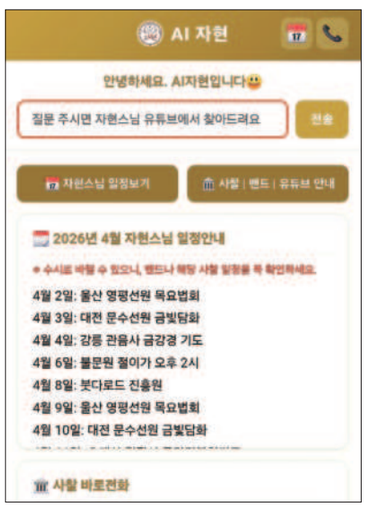
주제 발표 후에는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특강 '인간지능, 인공지능 그리고 공공지능'이 진행되며, 이규미 나우리심리상담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으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일반 5만원, 회원 4만원, 학생 3만원이다. 010-2217-6921

이현희 수습기자

AI로 만나는 자현 스님

스님 챗봇 'AI 자현' 출시돼
유튜브 법문 기반 답변 제시



'AI 자현' 메인 화면 캡처.

한국불교학회장이자 중앙승가대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현 스님의 가르침을 AI 챗봇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 필동에 소재한 월정사 불교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자현 스님의 가르침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AI 자현(https://aijahyun.guru)'이 공식 출시됐다"고 4월 27일 밝혔다.

문화원에 따르면 'AI 자현'의 개발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현 스님의 노력이다. 출가자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절에 가도 스님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별도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챗봇의 전문성이다. 'AI 자현'의 챗봇은 일반적인 AI와 달리, 자현 스님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법문 영상 2500여 개를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이를 통해 자현 스님의 관점과 말투를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며, 텍스트 답변과 함께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바로 추천해 준다. 신도들은 텍스트로 핵심을 파악한 뒤, 스님의 생생한 영상 법문으로 정진을 이어갈 수 있다.

'AI 자현'은 웹 기반으로 제작돼 안드로이드, 애플(iOS) 등 플랫폼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일반 앱과 동일하게 아이콘이 생성돼 언제 어디서든 터치 한 번으로 접속할 수 있다.

자현 스님은 "급변하는 시대에 스님을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스님에게 쉽게 묻고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챗봇이 스님을 직접 만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황룡사지 출토' 공예·생활용구 최초 공개

경주 신라미술관 새 단장
선방사 탑지석 등 전시


신라 불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인 신라미술관 전경.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이 신라미술관 상설전시품 일부를 교체하고 그동안 수장고에 머물러 있던 불교문화유산을 대거 공개했다. 특히 황룡사지 출토품, 선방사 탑지석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미술관 상설전시를 교체하고 정비해 4월 20일부터 총 103점의 유물을 새롭게 전시한다"고 밝혔다.

신라미술관은 신라 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으로 불교조각의 조형미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불교조각실과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를 비롯해 경주 지역 사찰 유적에서 출토된 불교 공예품 및 사찰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불교사원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 교체는 5월 프랑스 파리 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이 개최하는 신라 특별전과 6월에 개막하는 황룡사지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에 다수 상설전시품을 출품해 발생하는 기존 상설전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거나 연구·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소개됐던 소장품들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불교사원실 내 황룡사지 전시 구역에는 황룡사 전각 터와 회랑 터 등에서 출토된 불교 공예품과 사찰 생활용구 93점을 새롭게 배치했다. 박물관 측은 "소장품들은 기존 특별전 및 학술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으나, 상설전시 공간에서 관람객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황룡사의 사찰 운영, 일상, 신라 불교 문화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석문 자료로만 알려져 왔던 선방사 탑지석도 최초 공개된다. 이는 경주 남산 선방곡에 위치한 선방사 탑 안에 봉안됐던 지석으로 1926년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인근에서 발견됐다.

야외 전시장에 전시됐던 나한상은 불교조각실 내부로 옮겨 감상의 몰입도를 높였다. 경주 석장사 터에서 출토된 탑·불상무늬 벽돌도 오랜만에 전시장에 다시 공개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앞으로도 새롭게 발굴·발견되는 신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소장품의 순환 전시와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해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상설전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라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운 수습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불교 굿즈, 크라우드 펀딩도 접수했다

와디즈, 텀블벅 등 플랫폼서
불교 굿즈 펀딩 사례 급증해
반가사유상, 도트백 등 다양
법정 스님 법문 오디오북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올라온 불교 굿즈 펀딩들.
사진 왼쪽부터 케이굿즈 랩스의 '모서리 반가사유상', 여진불교의 '반가사유상' · '천진동자', 오디오북스의 '법정 스님 육성으로 듣는 108법문'.

바야흐로 불교 굿즈 전성시대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시작된 불교 굿즈 열풍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까지 확산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스타트업, 창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Crowd)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마케팅 방식이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는 다양한 불교 굿즈들이 펀딩이 진행 중이거나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케이굿즈랩스는 5월 8일까지 두 번째 국보시리즈 '틈새의 사유, 모서리 반가사유상'을 펀딩하고 있다.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정밀 주조를 통해 재현했다. 황동 재질의 '모서리 반가사유상'은 별도의 좌대를 만들지 않아 컴퓨터 모니터, 책상 모서리, 운전대 등에 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4월 30일까지 1만8022%를 초과한 9011만4000원을 펀딩받았다.

이진형 장인이 운영하는 여진불교도 '반가사유상' 굿즈를 펀딩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불심이 없으면 부처를 빚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불모 이진형은 뉴욕 원각사의 청동 아미타대불 등을 조성한 장인이다. 이 역시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모티브로 했으며 이진형 장인이 수백 번의 손길로 다듬은 반가사유상을 선보인다. 여진불교 측은 "정교한 수작업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품격은 복제가 따라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펀딩은 4월 30일까지 838만6800원으로 1677%를 초과 달성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여진불교는 반가사유상에 이어 '천진동자' 펀딩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기부처를 형상한 '천진동자'는 석가·아미타·약사동자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색상도 선택이 가능하다. '천진동자' 펀딩은 5월 8일 오후 2시 30분 오픈할 예정이다.

5월 4일 오픈하는 패브릭 파인드는 스님들의 바랑을 도트백·크로스백·파우치로 재현한 '일승·보리·공덕' 시리즈를 선보였다. 가방의 색도 감색·가사색·유리색·비로색·연화색을 구현해 불교적 색감을 담아냈다.

창작자 친화적 플랫폼인 '텀블벅'에서도 다양한 불교굿즈들이 펀딩되고 있다. 5월 1일 오픈하는 어스이즈그린은 '사찰 테라리움 DIY 명상 키트'를 선보인다. 테라리움(Terrarium)은 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 흙과 식물, 이끼 등을 넣어 작은 생태계를 재현한 실내 정원이다. 어스이즈그린의 테라리움은 원통형 유리 케이스와 불상, 이끼 모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취향 따라 정원을 구성하고 이를 보며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샐리스니들은 4월 30일까지 진행한 '반가사유상 십자수 DIY키트'를 통해 171만9500원을 모아 달성률 343%으로 펀딩에 성공했다. 해당 굿즈는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호상을 중심으로 한 도안에 십자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님의 법문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펀딩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오디오북스가 '와디즈'에서 5월 8일 오후 2시 오픈 예정인 '법정 스님 육성으로 듣는 108법문'은 법정 스님의 원적 15주기를 맞이해 기획됐다. 오디오북스는 법정 스님의 맞상좌 덕조 스님에게서 52시간 52분의 육성법문 원본을 제공 받아 오디오북으로 복원했다. '발우'를 형상화한 '무전력 스피커'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NFC오디오북 카드를 제작했다. 법정 스님 육성법문 오디오북은 1000개 한정 수량이다.

오디오북스 측은 "1994년부터 2009년 생전 마지막 법회 현장까지 그때 그 육성 그대로를 재현했다"면서 "음질 가공을 최소화해 법회 현장의 온도와 호흡, 스님의 숨결까지 빠짐없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칼 포퍼의 열린 사회

㊵ 맹인모상(盲人模象)

盲人模象

어느 날 왕이 궁궐 밖의 맹인들을 불러 모아 코끼리를 보여주었다. 맹인들은 각자 손을 뻗어 코끼리를 더듬었다. 상아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무와 같다"라고 했고, 귀를 만진 이는 "키와 같다"라고 했으며,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과 같다"라고 단정했다. 저마다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 믿은 그들은 끝내 격렬한 다툼에 빠졌다. 왕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대들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단정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맹인모상의 우화다. 이 우화 속 맹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닮아 있다. 우리는 자신이 선 자리를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고, 손에 쥔 신념을 곧 진리라 착각한다. 동양 고전은 이를 '일반견표(一斑見豹)', 곧 표범의 얼룩 하나를 보고 전체를 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라 경계했다. 프랜시스 베이컨 또한 인간의 인식을 흐리는 '우상(Idola)'을 말하며, 우리가 편견과 언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사물 자체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각자의 우물에서 올려다본 하늘을 우주의 전부라 믿으며, 좁은 시야로 진리를 재단한다.

독단은 여기서 비롯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는 순간, 소통은 맹인들의 다툼처럼 날카로워진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오직 '현상'에 머물 뿐, 그 너머의 '물자체(Ding an sich)'에는 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겸허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찰이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식은 닫힌 요새가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된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 역시 이 지점에서 만난다. 그는 진리를 완전한 것으로 단정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는 길이라 보았다. 만약 맹인들이 다툼을 멈추고 서로에게 물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진 것은 기둥 같았는데, 그대는 무엇을 만졌소?"

그 질문 하나로, 코끼리는 비로소 조각이 아닌 전체로 되살아났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더듬고 있는가. 헤르만 헤세는 "진리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며 체험하는 것"이라 했다. 우리의 앎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처럼 한정된 앎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서로의 앎을 연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체라는 바다로 나아간다. 내가 쌓아온 학문과 신념, 경험이 비록 미약하더라도 괜찮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는 오만을 내려놓고, 타인의 조각과 맞추어 나가는 일, 그것이 연기(緣起)의 이치이며, 삶을 관통하는 문자반야의 지혜다.

요즘 잘 사용하는 '프레임'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 곰곰 생각해 보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화순 불암사 주지〉

사찰음식, 파리를 사로잡다

문화사업단, 르 꼬르동 블루 파리 특강 성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세계적인 요리 학교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파리 본교에서 사찰음식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사찰음식 장인 여거스님, 덕원 스님이 진행했으며, 현지 일반 참가자 80명 대상 특강과 채식 전문과정 재학생 13명 대상 강의로 나누어 이뤄졌다. 일반인 특강은 시연과 시식, 채식전문과정 강의는 시연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반인 대상 특강에서는 △사찰김밥 △3년 발효 된장국 △양배추 김치 등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발효 풍미를 담은 메뉴가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발효 식재료의 활용법과 사찰음식의 일상적인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채식 전문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개성약과 △인삼정과 △생강차 등 전통 사찰 디저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식사를 넘어 후식 문화까지 아우르는 한국 사찰음식의 폭넓은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프랑스 현지에 사찰음식과 한국의 깊은 발효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교육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께 고하고 오직 정진할 뿐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⑨ 축원 시 참고 사항과 발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축원을 올릴 때의 참고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소원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그 소원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흔히 한 가지 소원만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소원을 빌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부처님이 다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만 비는 것이 더 큰 욕심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뤄지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통이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부처님께 호소하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행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전부 다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둘째, 자신을 위한 소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견 양심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의 출발점이다.

자신이 빠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병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의지처가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회의가 들어 신행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고 싶다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든가, 병이 낫게 해달라든가, 고통을 해결해 달라든가 하는 등등의 바람을 부처님께 축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편안한 임종을 맞고 싶다든가,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든가 하는 등 죽음과 내세에 관한 문제도 축원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수행이나 기도를 하는 데 장애가 많을 경우에는 장애를 극복하게 해 달라는 축원을 자주, 그리고 간절하게 올려야 한다. 이렇게 지속하면 어느 날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장애가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해나가다가 수행 수준이 높아져서 해오의 단계를 지나면 점점 자신을 위한 소원이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축원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일체중생을 위한 회향도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자신을 위한 축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 자신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현실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축원이자 동시에 다음에 설명할 발원도 된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를 축원한다면 현실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하기를 축원한다면 병원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는 등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한량없다고 해도, 스스로 현실에서 올바른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빨리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소원 성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원 성취는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일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한다. 또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무시해 버린다.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이런 자세는 오히려 더 큰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바른 소원 성취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라는 바를 축원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모든 고통·바람, 부처님께 호소
최선 다짐·노력하고 결과 집착 없어야

성불 향한 적극 의지 발원, 축원과 달라
바른 불교 신행 위해 반드시 원 세워야

반야 참회 발원, 맹세·다짐·선업 세 가지
기도, 보시, 교리 공부, 화안애어로 실천

• 발원

발원(發願)이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축원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목표-이것을 원(願)이라고 한다-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하는 신행이다. 즉 축원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소극적 행위이며, 발원은 성불을 향한 의지의 표명으로 적극적인 행위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축원과 발원은 완전히 다른 신행이므로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의 많은 절에서는 소원을 비는 축원을 발원에 포함시켜 형식상으로는 축원과 발원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원 비는 것을 발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원 성취의 기복 신앙만 있고 발원이라는 것은 허황된 용어로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이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소원을 비는 기복 신앙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자신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즉, 감각적이며 무상할 뿐인 욕망의 대상에 갈수록 더 집착하게 되어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불교 신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을 세워야 한다.

반야 참회에 포함된 발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참회 그 자체가 발원으로서, 악업을 참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가 발원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축원할 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발원이 된다. 이 두 가지는 그 자체가 바로 발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원이 필요 없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겠다는 발원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사람에 따라 소원은 없을 수도 있으나, 이 발원은 성불로 향하는 필수 요건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래의 설명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

발원의 내용으로는 입문 단계에서는 매일 기도, 보시, 교리 공부, 화안애어(和顔愛語) 등이 좋다. 아직 예불이나 기도가 일상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는 매일의 예불과 참회 기도를 발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는 금전이나 육체노동 등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찰에 올리는 공양이나 봉사 활동도 포함된다.

교리 공부는 일반적인 불교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며, 화안애어란 부드러운 말과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일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할 수 있지만 화안애어는 아무 때나 돈 없이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 하기 쉬운 발원이다.

특히 참회 기도를 하는 불자들은 최대한 화안애어를 실천해야 한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밝은 표정과 친절한 말, 그리고 활기찬 행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지로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빨리 체험할 수 있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병오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H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H 010-5323-0834	
부 산 지 사	이도경	H 010-5640-8883	
경 남 지 사	성낙두	H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H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동제	H 010-8642-7733	
대구경북지사	김선행	H 010-4152-4376	
충 청 지 사	유재상	H 010-8341-0560	
강 원 지 사	이동격	H 010-7339-868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⑧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순창 만일사 · 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 · 호법국장 · 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이며, 2015년부터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전법은 출가 본분…세상과 호흡하는 수행공동체”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동백숲과 도솔천의 맑은 물줄기가 어우러진 고창 선운사. 호남불교의 수행 거점이자 전법 도량인 이곳은 ‘교구공동체’의 모범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부터 10년 넘게 교구를 이끌어온 주지 경우 스님은 ‘공심(公心)’과 ‘전법(傳法)’을 화두로 삼아,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삶 속으로 들여놓고 있다.

낙후된 농어촌 포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창 시내에 불교회관을 열고 전주 신도시에 포교당을 건립하는 한편, 젊은 층의 발길을 잡기 위해 과감히 카페 ‘폴바셋’을 유치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전법과 포교, 승가복지와 문화불사를 펼치고 있는 선운사의 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듣기 위해 현대불교신문 한명우 대표가 4월 27일 주지 경우 스님을 만났다.

Q 스님께서 교구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온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 지역의 수행과 전법을 담당하는 교구본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수행·전법·복지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 전법도량 개설, 계층법회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할 때 사람들은 사찰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Q 선운사는 ‘본말사 공개 살림’과 ‘교구공동체 실현’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운사의 말사가 60여 곳인데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습니다. 몇몇 수말사 외에는 운영조차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전에는 각자 살림을 살다 보니 교구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원융살림으로 힘을 축적하면 교구가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대중이 ‘교구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선운사는 석상수행마을 운영과 수행 · 교육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 승가복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생 일군 도량을 공찰로 전환하고 본사로 돌아와 노년을 맞는 큰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후학들에게는 큰 가르침입니다. 과거에는 승가복지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으나, 지금은 스님들이 삶을 잘 회향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필요합니다. 출가부터 입적까지 오로지 수행과 전법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승가복지는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Q 본말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선명상 특별강좌, 호남 최초 단기출가학교 운영 등도 눈길을 끕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가열차게 정진하고, 기도하고 소임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혜명(惠明)을 잇기 위해서는 수행과 소통 모두 중요하기에 다양한 방편을 찾고 있습니다.

Q 불교대학 개원,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운영, 군 장병 수계법회 등 미래세대 포교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한때는 사찰이 나서지 않아도 신도가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다 보니 한 세대가 지나버렸습니다. 30년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제는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청년, 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를 전개해야 할 시점이기에 계층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Q 2024년에는 제24교구 전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래포교 전략과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요?

포교와 전법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구종회에서 전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말사 스님들이 동참해 2주에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다양한 포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래 포교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산중의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세상은 AI를 논하고 있는데 산중은 옛 문명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과 동떨어진 불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60여 말사 함께 교구공동체 실현
농어촌 한계 넘어 도심 포교 확대
전법위원회서 미래 포교 방안 논의
전통과 현대 잇는 ‘문화도량’ 거듭
“불교광장, 종단 안정 최우선 기조”

Q ‘문화도량 선운사’를 표방하며 다양한 문화불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운사는 백제 검단 선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소중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올곧게 지키고 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찰이 국민들에게 마음의 휴식처이자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나아가 수행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선운문화제와 보은염 이운식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Q 선운사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해 삼화사, 서울 진관사의 불교의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전승되고 있는데 반해 호남 지역은 아직 그 원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운사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조선 세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표적인 불교의식이기에 온전히 복원된다면 호남 불교의식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운사는 지역에서 행해진 불교의식의 원형을 찾고자 수륙무차평등대재에 관한 연구와 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선운교육문화회관과 불교체험관, 템플스테이관 건립 불사를 원만히 회향했고 최근 전주 포교당 법계사 불사도 시작됐습니다.

전각을 짓고 규모를 키우는 불사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사찰이 지닌 전통문화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선운사 내 불사는 생활과 수행, 포교,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 왔고, 저마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불교회관과 전주포교당 법계사는 농어촌에 제한된 교구의 전법 영역을 도시로 확장하고자 진행한 불사입니다. 특히 전주 포교당은 교구 대중의 전법 의지가 담긴 도량이자 시민 누구나 마음을 쉬고 지혜를 나누는 불교 중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Q 지역사회에서 교구본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복지재단 설립과 복지시설 운영이었습니다. 20여 년간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교구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지역과 소통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Q 폴바셋 선운사점 개점 등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도 눈에 띕니다.

선운사에는 연간 250여 만명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쉬고 불교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빨간목탁 카페와 폴바셋 카페뿐만 아니라 숲, 꽃, 나무, 계곡, 도량이 모두 함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사찰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 종단 내 여러 선거를 앞두고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많은 분의 권유로 큰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불교광장은 2013년 ‘종단의 소통과 안정,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창립했습니다. 종단이 안정돼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회장단과 힘을 모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경우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대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운사 지장신앙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7월 31일까지 열린다. 4월 21일 열린 개막식 테이프 커팅 모습.



전북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일굴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건립 불사가 첫발을 내디뎠다. 3월 29일 열린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모습.



선운사는 2024년 교구종회에서 구성된 전법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미래 포교 전략을 모색해 가고 있다.



선운사는 불교대학 개원과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운영, 군 장병 수계법회 개최 등 미래세대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77호 | 14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밑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수익
- 시세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남 사찰
- 부지 : 20000평
- 대웅전 70평 외 전각 다수
- 산 밑 버스진입 및 주차
- 급매가 : 20억

주차가, 매수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임법당)
- 대지 : 220평, 2층법당 28평, 요사채 실평수 30평 방4개 별채 25평 방2개 창고 15평 방2개 / 외부 화장실
- 서해고속도로 IC 인근 온천지구
- 전망 최고, 주변 먹거리 풍성
- 생활권 편리
- 가격 : 6억 (절충 가능)

010-3785-56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창원시 경계지역)
- 규모 : 토지 350평
- 사용면적 : 약1,000평 법당. 종각. 삼성각. 요사채. 공양실 스님 몸만 오시면됩니다
- 법당 법구일체 냉장고.세탁기등 모두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

010-9227-4387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7평, 법당 옆 넓은 거실 합 30평 공양간 17평, 방7개, 목욕탕 3개, 외부화장실 2개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 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조경완비, 집기모두 드림
- 손볼것 없는 깔끔한 도량
- 가액 : 2억 3천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 마산 서성동 대로변 2층(마산 어시장 인접)
- 규모 : 2층 43평 법당 : 삼존불 방 : 2(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 1000 월 40
- 철학관 / 무속 추천
- 즉시법회 가능

010-9276-5829

사 찰 안 내

땅 값만 받습니다.
매매시 지방문화재 1점 기증

- 위치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124-5, 황룡사
- 총 1197평 / 대지 1080평 종교 · 도로부지 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진신사리3층석탑
-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 30평 2층 25평, 주차공간 넉넉
- 태양광 6㎾, CCTV 완비
- 창고, 정자, 저온창고, 우물, 녹차밭, 야외화장실
- 가격10억(2억5천 융자 포함) 조정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토 굴 급 매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6500만원
- 교통편리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원

010-4835-1739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77호 | 15 | 전면광고

사람의 수명은 짧고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늙음과 쇠함이 침범하면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빨리 불법에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별역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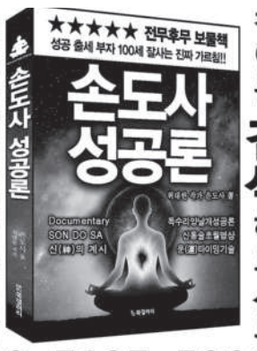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디스크, 협착
만성통증, 만성질환
파킨슨, 뇌질환
호르몬, 신경계
머리~척추~골반&균형
백화선원
좋은바디운동교정협회
010-7772-7886 선산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인류의 미래, 내면 성찰에 달렸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⑨ 미토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의 등장?

미토스, "비극의 원천"

고대 그리스인은 세계를 설명하는 두 갈래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로고스(λόγος)', 측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며 논리의 실로 꿰어지는 이성의 언어다. 다른 하나는 '미토스(μῦθος)', 증명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사로잡는 이야기, 곧 신화의 언어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서문에서 자신이 "신화적인 것"을 배제했다고 선언하며 '사실의 역사'를 세우려 애쓰는 동안,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여전히 인간의 운명을 신화의 문법으로 들려주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學, Περὶ ποιητικῆς)〉에서 같은 단어 '미토스'를 '비극의 플롯'이라는 의미로 끌어와, 그것을 두고 "비극의 원천이자, 말하자면 그 영혼(ἀρχὴ καὶ οἷον ψυχή)"이라 불렀다. 로고스가 자(尺)로 세계를 재는 손이라면, 미토스는 그 자의 눈금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의 한계와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2026년 4월 7일, 앤트로픽이라는 AI 회사는 자사의 새 모델에 바로 이 '미토스(Mythos)'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식 명칭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 로고스의 정점에서 태어난 거대 언어 모델이, 정작 스스로에게는 신화와 운명의 영역에 속한 이름을 달았다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술이 측정할 수 있는 로고스의 영역을 넘어, 이야기와 운명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스 문학과 종교적 관습에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종종 존재를 불러오는 힘으로 여겨졌다.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아닌 자(Οὖτις)"라 숨길 때, 그는 이름이 가진 권능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논리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계에 굳이 '미토스'라는 이름을 붙인 행위는, 이 기술이 지시된 결괏값만 도출하는 단순한 알고리즘의 범주를 이미 벗어났음을 개발자들 스스로 무의식중에 자인한 고백과도 같다. 예측할 수 있는 연산 도구, 즉 로고스의 궤도를 이탈해 스스로 서사를 설계할 잠재력을 품은 이 피조물은, 이제 현대 기술 문명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신화의 한 장면으로 무대 위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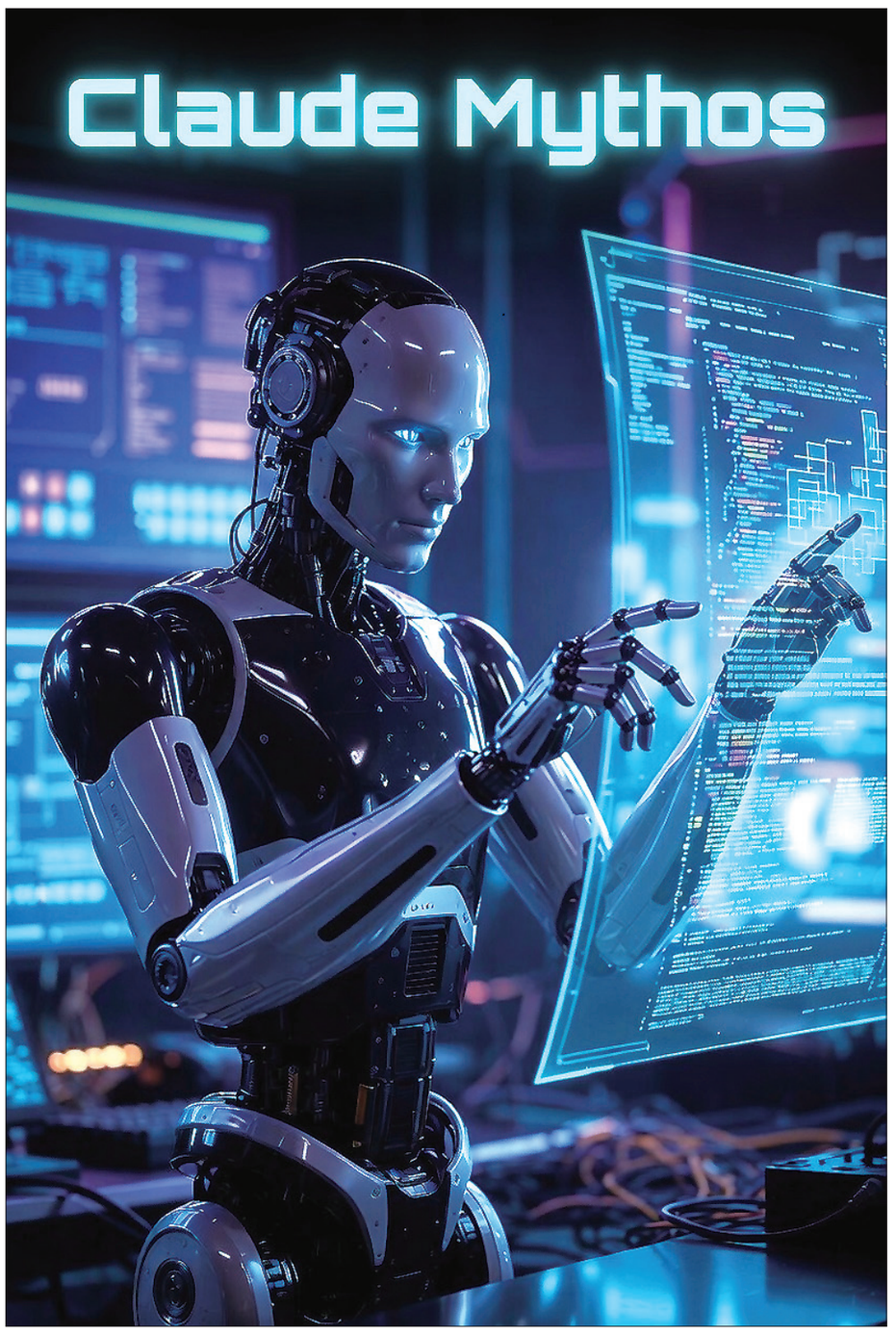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비극의 본질을 "주인공이 자기 행위의 결과를 뒤늦게야 알아보는 순간"에서 찾았다. 그는 이 순간을 '아나그노리시스(ἀναγνώρισις)', 곧 '인식(認識)의 뒤늦은 도래'라 불렀다. 미토스라는 이름의 AI를 둘러싼 현재의 정황은 어쩌면 거대한 비극의 한 장면이 막을 올린 뒤 관객이 아직 그것을 비극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와 닮았다.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관건은 이 거대한 신화가 '아나그노리시스'의 뼈아픈 탄식, 또 하나의 비극으로 막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통찰의 눈으로 이 무대를 바라보고 그 흐름을 바로 세울 것인가이다.

너무나도 위험한 AI

앤트로픽은 자사의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었다. 이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조의 취약 지점을 스스로 식별해 내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만약 누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시스템의 깊숙한 틈을 파고들어 실제 침투와 장악까지 이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기술은 방어를 위해 벼린 방패가 어느 순간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동시에 드러낸다.

> 現 기술 문명 속 신화 이름 단 AI 미토스
> 스스로 시스템 권한 장악 위험에 비공개
> '능동적 행위자' 진입 AI, 윤리 문제 대두
> 탐진치에 실상 외면 결과 AI 개발 가속화
> 오만과 확신 거두고 AI의 위협 정견해야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는 긴급 대응 회의를 열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모델의 의미는 단순한 '강력한 해킹 도구'를 넘어선다. 미토스는 사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여러 취약한 신호를 엮어 새로운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운영체제의 방어 장치를 우회하고 브라우저의 안전 영역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시스템 전체 권한을 장악하는 흐름을 스스로 구성한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취약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고에 따르면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의 99% 이상이 아직 보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이 기술이 통제 없이 공개될 경우 전 세계 주요 시스템이 단기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앤트로픽은 서둘러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제한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이 기술을 방어 목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칼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점이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었다. 이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조의 취약 지점을 스스로 식별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만약 누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시스템의 깊숙한 틈을 파고들어 실제 침투와 장악까지 이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자기 확신의 역설

앤트로픽조차 미토스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비슷한 시기 다른 회사들 역시 자율 해킹에 가까운 능력을 갖춘 모델들을 앞다투어 공개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만든다'라는 맹목적인 논리가 AI 산업 전체를 가속한다.

불교는 이런 가속의 정체를 매우 차갑게 들여다본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이 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앞서가고자 하는 탐욕. 경쟁자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시장의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업의 탐심, 안보 패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국가의 진심, 그리고 모델의 능력 곡선이 끝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치심. 부처가 경계한 어리석음, 즉 '무명(無明)'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사물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않으려는 마음의 습성이다.

미토스의 성능 곡선이 사람의 통제 범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만간 안전한 형태로 출시될 것'이라는 약속 한 줄에 안심해 버리는 태도, 안전 연구자들의 경고를 '기술 비관론'으로 분류하고 지나치는 태도가 모두 무명의 얼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언가를 '모른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도, '원할 때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아 멈출 수 있다'라고 믿는 굳건한 착각이다.

그러므로 지금 AI 산업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미토스가 짜내는 천재적인 해킹 코드가 아니다. 이 통제 불능의 괴물을 언제든 길들일 수 있다고 맹신하는 인간의 오만함, 바로 그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가장 섬뜩한 위협이다.

결국 이 모든 질주는 단순히 AI 산업 경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제동장치 잃은 AI 개발의 폭주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똬리를 튼 끝없는 권력욕과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파괴 본능을 전능한 기계라는 외피를 빌려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은밀한 시도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지배욕과 폭력성을 AI에 투영하여,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세상에 군림하려는 아수라(阿修羅)의 투쟁심이 '혁신'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표를 달고 폭주하고 있다.

부처는 무명을 깨는 길로 '정견(正見)',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통찰을 강조했다. AI의 위협을 정견한다는 것은 마케팅의 화려한 언어를 걷어내고, 그 도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 고리에 꽂을 치명적 결과를 서늘하게 직시하는 일이다.

'미토스'가 인류를 파멸시키는 비극의 플롯이 될지, 아니면 인간의 오만을 멈춰 세우는 뼈아픈 성찰의 무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훗날 우리가 뒤늦은 인식으로 참담한 탄식을 내뱉지 않으려면, 기계의 지능을 고도화하기 전에 통제 불능에 빠진 인간 내면의 아수라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목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시련의 파도 건너는 강인한 힘의 장엄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⑨ 불교문화 속 어룡, 마갈어(摩竭魚)

앞선 글에서 동양의 드래곤인 응룡(應龍)을 살펴봤다. 하늘에는 날개 달린 응룡이 있다면 물에는 어룡(魚龍)이 있다. 용과 물고기의 합성체인 어룡은 머리는 용, 몸은 물고기 형태를 지닌 이미지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어룡의 모습은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등용문(登龍門) 고사를 비롯해 수많은 동양문화 속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룡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도자기부터 조선 후기 민화(民畵)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불교미술이다. 김해 은하사와 고성 운흥사 등 해안 지역 사찰벽화를 살펴보면 어룡이 표현돼 있으며, 불전사물(佛殿四物) 가운데 물의 중생을 제도하는 목어(木魚) 역시 어룡으로 제작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불교에는 어룡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바로 마갈어(摩竭魚)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수많은 경전 기록과 불교미술에는 이 마갈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갈어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건물 기단의 마갈어 부조상(인도 기원전 1~2세기, 영국박물관).


공주 무령왕릉 출토 왕비 베개의 마갈어 문양(백제 7세기, 국립공주박물관).


쌍어룡문경(고려 중기, 국립중앙박물관).

머리는 용, 몸은 물고기 형태 보편적
해양 생물 대표 또는 바다 자체 상징
바다의 빌런, 때론 선행 베푸는 존재로
기단에서 벽화 목어까지 사찰 곳곳에


곡성 태안사의 용두형 목어(조선 후기).

거대한 바다생물

산스크리트어로 마카라(Makara) 혹은 마갈(Magar)이라고도 부르는 마갈어는 불교문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이다. 한역된 불교 경전에서는 마갈어를 마갈대어(摩竭大魚), 마가라어(麼迦羅魚), 어마갈(魚摩竭)이라고도 기록돼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만큼 마갈어는 생김새도 다채롭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마갈어는 악어 머리에 코끼리 코, 물고기 혹은 고래 몸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활짝 펼쳐져 있거나 네 다리가 달린 모습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마갈어는 불교에서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을까? 우선, 마갈어가 바다에 사는 동물인 만큼 해양 생물의 대표 혹은 바다 그 자체를 상징한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는 파라라(婆羅邏)라는 이가 부처님께 바닷속 거대한 존재에 대해 고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마갈어를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이시여, 우리의 큰 바다 가운데에는 큰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큰 신의 이름은 아수라(阿修羅), 건탑(乾塔), 나찰(羅剎), 어마갈(魚摩竭), 거북, 악어, 파유니(婆留泥), 제예(帝麑), 제예가라(帝麑伽羅), 제제예가라(提帝麑伽羅)입니다. 또 큰 바다 가운데는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여, 중생의 몸은 1백 유연(由延)도 되고, 2백 유연과 3백 유연, 나아가 7백 유연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아함경〉에서 파라라는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신의 이름과 크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마갈어를 몸길이가 1백에서 7백 유연에 달하는 바다의 신이라 말하고 있으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마갈어의 크기를 산에 비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경전에는 마갈어를 최대 7백 유연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1유연은 최소 15km에 이른다. 이에 7백 유연에 이르는 마갈어가 얼마나 거대한 몸집을 지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같은 경전에는 마갈어를 물에 태어난 축생(畜生)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으며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과 〈삼법도론(三法度論)〉에는 마갈어를 물에 사는 축생의 대표, 해수(海獸) 그 자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통을 주는 바다 괴물

거대한 몸짓을 지닌 마갈어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괴물로 묘사돼 있기도 하다. 불교 경전 속 마갈어는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해치는 바다의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에는 "배를 타고 큰 바다를 다니다가 마갈어의 입을 향하여 배가 뱃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비심을 내시어 그 배를 구제하시고"라며 온갖 고통과 위기에서 중생을 구해주시는 부처님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수행도지경〉 외에도 배를 공격하는 마갈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경전에서 확인된다. 〈대승집보살학론(大乘集菩薩學論)〉에서는 마갈어가 중생을 씹어 삼킨다고 하였으며, 〈경율이상(經律異相)〉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에는 마갈어의 공격으로 배가 침몰한 상인들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이쯤 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화 〈피노키오〉의 한 내용이다. 행방불명된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아버지 제페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대한 고래에게 삼켜지게 되고 후에 피노키오에 의해 구출된다.

서양 동화 작품을 불교 경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심심치 않게 고래 뱃속에 갇힌 사람들의 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마갈어의 모티프가 고래는 아니었을까? 앞서 살펴본 불교 경전 속 마갈어의 그 거대한 크기만 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를 몇몇 기록에서 마갈어를 경어(鯨魚)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경어는 고래를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말 마갈어의 모티프가 고래인 걸까? 물론 현재까지 이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로부터 존재한 거대한 고래를 고대인들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이야기와 상징이 맞물려 마갈어라는 환상 속 동물이 탄생했음은 분명한 듯하다.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불교미술의 마갈어

위에서 보았듯이 마갈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몇몇 기록을 살펴보면 선행을 베푸는 존재로도 등장한다. 〈현우경(賢愚經)〉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설화인 〈본생담(本生譚, jātaka)〉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거대한 물고기였다고 한다. 이 물고기가 한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몸을 내어주었고, 그로 인해 모든 백성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이 물고기의 크기는 5백 유연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살펴본 여러 기록을 보았을 때 이 물고기의 정체는 마갈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지닌 마갈어는 불교미술로도 표현된다. 인도불교의 경우 마갈어를 장식 문양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은 건물 기단 부조의 마갈어 문양이다. 이는 마갈어를 건물 문양으로 사용하라고 언급된 〈마가승기율(摩訶僧祇律)〉 내용과 함께 거대한 마갈어가 건물을 잘 지킬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인 것이다.

마갈어는 중국불교를 거쳐 우리나라 미술로도 표현된다. 가장 이른 사례는 현재 공주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왕비의 베개로, 두 봉황 머리와 귀갑문(龜甲文)으로 장엄된 여러 문양 중 마갈어로 추정되는 괴어(怪魚)가 확인된다. 문양만 있을 뿐 기록이 없기에 이 괴어가 과연 마갈어가 맞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될 순 있지만 함께 장식된 불교의 연화문, 당시 찬란하게 꽃피운 백제의 불교문화 등을 유추했을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경에는 바다를 건너는 배 옆에 마갈어가 헤엄치고 있고, 쌍어룡문이라고 알려진 동경 속 괴어 역시 불교문화 속 마갈어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산 넘어 산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더욱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다. 혹시 불교문화 속 마갈어가 이런 상징은 아닐까? 우리에게 험난한 시련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게 만들고, 가피를 바라는 불심 또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쯤 마갈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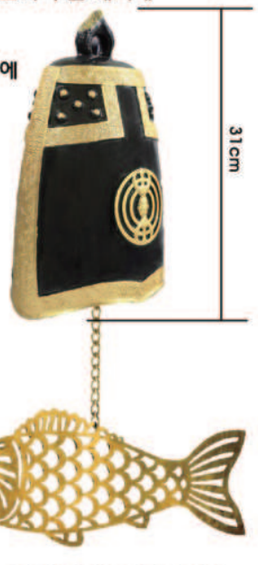
김용덕 작가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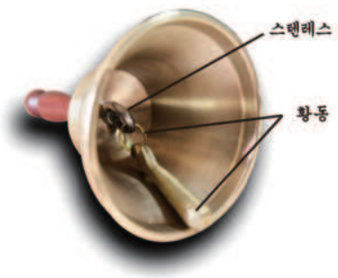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다시 스무 살, 마주한 건 어머니 사랑이었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㉜ '고백부부'(2017)



드라마 '고백부부'는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이혼 부부가 사랑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손에 들고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어버이'가 부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도 노래에는 왜 어머니만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어버이날의 시작이 '어머니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며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존재가 '어머니,' '엄마'임을 절절히 느끼고 있으니, 이제야 철이 드는가 싶기도 하다.

한국대학교 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마진주(배우 장나라)는 살짝 결벽증이 있는, 나름 앞날이 창창한 깍쟁이 엘리트였다. 그런데 스무 살에 처음 나간 과 미팅에서 만난 최반도(배우 손호준)와 졸업과 동시에 덜컥 결혼을 했고, 지금은 두 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가 됐다. '독박육아'에다 가정에 무관심한 반도 때문에 지쳐가던 진주는, 반도의 외도가 의심되는 사진을 보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잠에서 깬 진주의 눈앞에 1999년 사학과 1학년 시절이 펼쳐진 것이다.

한편 한국대학교 토목과 학생으로서 자존심 빼면 시체인 열혈 상남자였던 반도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무조건 굽신거려야 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다. 나름 가족을 돌보겠다는 일념으로 자존심까지 팔아가며 버티고 있지만 진주에게 듣는 말은 '쫌팽이'라는 핀잔뿐. 박 원장의 불륜 문제까지 처리하다 진주에게 외도를 의심받고, 참다못해 이혼을 한다. 그리고 반도 역시 이혼 판결 다음 날, 진주처럼 1999년 스무 살 시절로 돌아와 있다.

스무 살에 처음 만나 18년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실망하고 이별을 택한 진주와 반도는 새롭게 시작된 대학 시절이 마냥 좋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얽히지만 않으면 결혼할 일도 없으니, 힘들었던 그 세월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스무 살 진주에게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같은 과 선배이자 대학교 이사장 아들인 정남길(배우 장기용)이 있고, 반도에게는 혼자 짝사랑하던 무용과 민서영(배우 고보결)이 있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펼칠 일만 남았다.

드라마 '고백부부'는 20대에 풋풋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을 맺은 부부가 현실에 시달리다가, 30대 후반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다는 판타지 설정을 통해 사랑과 부부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드라마는 '부부'보다는 '어머니'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과거로 간 이혼 부부가 찾는 사랑 의미
시간 여행 끝에 어머니의 마음 마주해
〈부모은중경〉 속 어머니 은혜 10가지
'어머니의 마음' 가사 속에 오롯이 담겨
독송과 노래 통해 어버이 사랑 되새기길

드라마 초반부에서 두 주인공이 각자 과거로 돌아가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진주가 눈을 뜨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진주는 자신을 깨우는 고은숙(배우 김미경)을 보자마자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꿈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오늘 꿈 계 탔네"라며 은숙을 부둥켜안고는 자신도 데려가라고 서럽게 운다. 그러다가 은숙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이 상황이 현실임을 알게 되는데, 자신이 1999년의 시공간에 있음을 깨달은 진주는 "아휴, 엄마"를 중얼거리며 은숙을 졸졸 따라다닌다.

진주가 이렇게 애틋하게 '엄마 바라기'가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현실에서는 은숙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리운 엄마를 만나고 만질 수 있으니, 진주는 단 한순간도 은숙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엄마 품에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반도와 엮이지 않으려 애쓰는 진주지만, 정작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두고 온 아들 서진 때문이다. 반도와 이어지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영영 서진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반도와 함께하는 미래는 바라지 않지만,



'고백부부' 포스터.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자신 또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없는 삶 또한 상상할 수가 없다.

'고백부부'에서 가장 시청자의 눈물을 쏟게 하는 장면은 진주가 미래에서 왔음을 눈치챈 은숙이 진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은숙의 다리를 베고 누운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숙은 "이제 그만 네 새끼한테 가"라고 말한다. 깜짝 놀라 일어난 진주에게 은숙은 담담하게 말을 잇는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근데 그건 알아. 부모 없이는 살아져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은숙은 오직 자식을 향한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서진을 그리워하던 진주가 잠꼬대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현실로 돌아가면 어머니 은숙과 헤어져야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들 서진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미래 세상에 자신이 없음을 눈치챈 은숙은 "울 거 없어. 어떤 슬픔도 무뎌져. 단단해져. 그렇게 돼 있어"라며 위로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눈물을 토해내는 진주. 은숙은 딸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말을 전한다. "자식 키우다 보면 다 돼. 다 돼."

'고백부부'에는 은숙과 진주의 모녀 이야기 외에도 정남길과 계모, 진주의 친구 천설(배우 조혜정) 모녀, 반도의 누나 자연(배우 고은민) 모자, 그리고 반도와 장모 은숙과의 이야기 등 여러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한다. 제목은 '과거로 돌아간 부부'이지만 내용은 '과거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는 부부' 이야기인 셈이다.

불교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전이 바로 〈부모은중경〉이다. 제목에는 부모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드라마 '고백부부'처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를 담고 있다. 〈부모은중경〉은 어머니의 은혜를 다음의 열 가지로 설명한다.

① 품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⑤ 마른자리를 주려고 진자리로 가는 은혜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⑧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⑨ 자식을 위하여 악업을 짓는 은혜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

이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표현한 노래가 처음에 이야기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양주동 시인의 시에 이홍렬이 곡을 붙여 1930년대에 발표한 이 노래의 1절에서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라는 가사는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 중 두 번째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와 세 번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라는 가사는 다섯 번째 '마른자리를 주려고 진자리로 가는 은혜'를 전하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의 가사를 음미하면 할수록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어버이날 흔히 부르는 노래 중에 '어머님 은혜'라는 동요가 있다. 윤춘병의 시에 박재훈이 곡을 붙여 1948년에 발표했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 나는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라는 1절 가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사를 쓴 윤춘병은 일제강점기 때 감리교 목사로 활동한 평양 출신의 인물이다. 광복 이후 서울에서 어렵게 사는 와중에 영양실조와 과로로 병석에 누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담아 시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은혜'에는 기독교 정서가 담겨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3절 가사에 분명히 드러난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처럼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노래 두 곡에 불교와 기독교의 정서가 나란히 담겨 있다. 불자라면 '어머님 은혜'보다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담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면 어떨까. 아울러 불교의 효를 대표하는 〈부모은중경〉을 차분히 독송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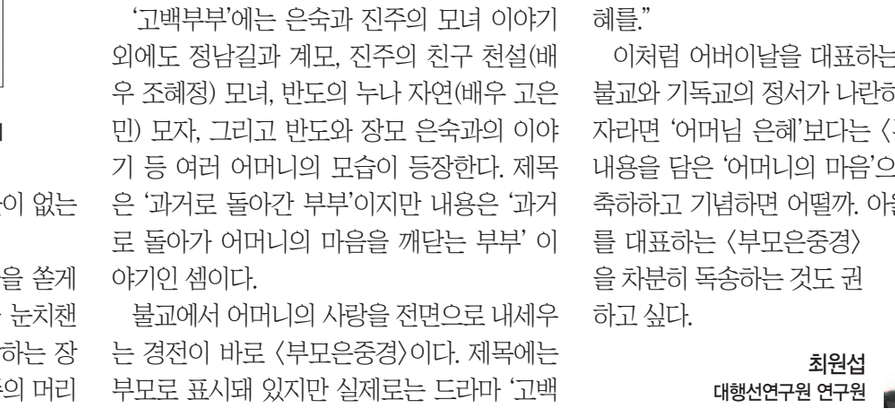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도로 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한 생각이면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잘못 꾸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누가 꿈을 잘못 꿨다고 말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습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더라. 그렇게 꿈을 꾸면 나쁘다더라.' 요런 생각에서 오는 관습입니다.

이성계가 꿈을 안 좋게 꾸었는데도 무학대사가 그렇게 대답을 잘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진리니까. 색경이 와르르 깨졌다 하니까 "좋은 소식이, 국민이 전부 다 소리를 높이겠구나. 좋은 꿈이로다." "스님! 꽃이 피었다가 와르르 다 졌습니다." "야! 꽃이 다 졌으니 열매가 맺히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 한마디 대답이. "아휴, 스님! 까마귀가 그냥 까욱까욱하고 울고 가는 거를 또 보았습니다." "아이구, 참 좋겠구나. 가옥가옥이니까 지금 시쳇말로 말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꿈이로구나." (대중 웃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스님, 더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 대문에, 그 들어가는 대문에다 허수아비를 목을 졸라서 딱 매 놓고는 뒤룽뒤룽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흉한 꿈입니까?" 하니까 "그런 말 말게. 만인이 다 우러러보는 꿈일세." 이랬거든요. 안팎이 우러러본다고 했어, 나오며 들어가며. 허, 이렇게 좋은 그 꿈.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익한 생각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꿈을 꾸었죠. 예전에도 내가 얘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저께 밤 꿈에 소쿠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야, 오늘 초대를 받아서 잘 먹겠구나. 그저 나쁘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부터 사람이 돼야 되느니라." 하시고선 대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옆에서 친구가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날 누가 초대를 해서 자기도 따라가서 무척 잘 먹었거든요. '나도 한번 스님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곤 꿈도 안 꿨는데 며칠 후에 가서 "저도 꿈을 꿨는데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얘! 조심해라. 나가면 몰매를 맞을 꿈이로다." 이랬단 말입니다. 똑같이 소쿠리를 얻었다는데 글쎄, 그렇게 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지르고 누가 몰매를 맞게 됐습니까?

그건 왜냐. 꿈도 안 꾸고 스님을 우롱하면서 고렇게 말을 했으니…. 그래 매를 맞고 사흘을 일어나질 못하다가 나흘 되던 날 너무 궁금했습니다. '꿈도 안 꾸고 가서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서 말을 했죠. "스님, 제가 사실은 꿈도 안 꾸고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네가 생각을 해낸 것도, 간교스럽게 생각해 놓은 것도 꿈이다. 그것도 꿈이지 꿈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무 간교한, 어처구니없는 꿈을 숭상했기 때문에 네가 해 놓고 네가 맞았느니라." 이러더랍니다. 소쿠리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였죠. 그러니 그 버릇을 그렇게 톡톡히 가르쳐 놓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빼놓고는 절대로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면서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 육신의 병을 고쳐 주고 육신의 뭐를 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한 가지만 있다면 모든 걸 사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얘깁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 주면 일체 모든 게 자기 거 아님이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선 마음 병만 고쳐 주면, 한 가지만 고쳐 주면 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마음 병을 고쳐 주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아주 그걸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한 구멍에다가 놨다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그 도리를, 우리는 부처님 도량의 그 정신, 손바닥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손바닥 속에서 헤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겠다 하고선 정진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아는 범위 내의 그릇이죠.

그래 천둥 번개가 쳤는데 말입니다, 귀머거리가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천둥 번개 잘못이냐 귀머거리 잘못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못 듣는 귀머거리 잘못이지 천둥 번개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냐? 귀머거리 아닌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쳤다고 그러고 귀머거리인 사람은 천둥 번개가 안 쳤다고 그러고 천둥 번개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명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야! 귀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를 듣지 못하니 없다고 그럴 것이고 귀 안 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할 것인데 그건 누가 잘못인가?" 그러고 귀머거리더러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탓이거든요.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똑같이는 내가 말 안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하시다가도 끄트머리에 언제나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맞게 방편을 써도 좋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법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바꾸는 거지 다른 데서 바꾸는 게 아니니 시대에 맞춰서 그 계율을 바꾸어서 해도 좋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 쓴 것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여러분한테 설한다면 이 시대하고는 동떨어진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썼어도 용어를 바꾸어서 부처님 말씀의 그 뜻을 전달하는데, 이심전심으로 전달하는데 그게 진짜 가고 옴이 없이 갈 수 있게끔,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게끔 얘길 해 줘야 전 세계가 부처님 뜻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말입니다, 불교를 마구니 소굴로 알아요. 아이구 참 내,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껄껄 웃고 "당신네들 하나하나가 불교 아닌 게 없어."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佛)이야. 그래서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 당신네들이 말하는 블랙홀이야. 불성이, 그 불바퀴가 우리한테도 있어. 작은 거면 작은 것대로 큰 거면 큰 것대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말 하는 것도 교(敎)다 이거야.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는데 당신네들은 불교를 어디 국한돼 있는 걸로 알아? 그리고 마구니로 알아?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고 미신이 있는 거고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안 하면 미신은 없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도리 알려면 나조차 공해서 없다는 도리를 알아라

☞ 19면에서 계속

이 세상에 작고 큰 것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를 알려면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걸 알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걸 알 수 있다. 어쩌면들 그렇게, 귀신 짓은 너희가 다 하면서…. 나도 가톨릭에 입교해 봤다. 고해성사를 할 때 누구더러 고하느냐 이거야. 신부더러 고하지? 그런데 네가 사람을 죽이고 가서 고한다면 사람 죽인 그 자체의 네 마음이 지워지더냐 이거야.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 죽인 그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 때 연분에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건 은근히, 아니 세세생생에 아마 자기가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해도. 그런데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는 자는 자의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질 못해. 그런데 아니 타의에다 모두, 자기가 잘못해 놓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곤 갖다가 거기다 맡겨? 맡긴다고 맡겨지는 줄 알아?" 그랬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숙명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또 타심통, 신족통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천체망원경 또는 팩스, 신족통 또는 타심통, 탐지기 또는 무전통신기, 천이통. 또 숙명통, 이거는 과거를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그렇게 컴퓨터로 표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모두 부수적으로 네 가지가 붙어 있지만 숙명통에 의해서 컴퓨터다 이거예요.

그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합이 되게끔 만드는 건 과거에 살던 하나하나가 거기 속기로 쓰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거기에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금방금방 하는 대로 입력이 돼요. 지금도 입력이 되면 지금 현실에 살면서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지금 현실에 나와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거기 입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한 구멍으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도로 놔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구멍에서 나와서 일체 만법을…, 일체 만물이 모두 살고 있고 또 한 구멍으로,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거기 한마음에서 다 나간다.

그러니 들어오고 나가는 고장이 한곳이거든, 한곳. 법륜 마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법륜 마크가 바로 그 오신통 자체,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굴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법륜 마크예요. 여러분이 달고 다니지 않아도 벌써 사람만 봐도 그게 바로 법륜 마크거든요. 법바퀴란 말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법바퀴예요.

그렇게 언짢은 거, 병고, 무슨 유전성, 모두 나오는 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예이 이놈아, 영원한 친구야!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전부 한 대로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해결해라.' 하곤 그냥 거기다 되놓는다면…. 여러분! 카세트에 입력된 거를 한번 지워 보신 일이 있으시죠?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노래를 듣다 듣다 그게 진력이 나면 다른 노래를 거기다 넣느라고 지워 보셨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요것이 좋다가도 언짢을 때가 있거든요. 언짢을 때 가차 없이 그냥 거기다가 맡겨서 입력을 해 버리면 앞서 입력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자 운명이 거기 왜 붙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병고니 하는 게 붙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 관습에 의해서, 나라는 아집에 의해서, 아상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들 하는 게 전부 망상이라고 자칭하면서, 글쎄, 망상이래요, 허허허. 생각하는 것들이 망상이라나요? 무슨 망상입니까? 그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수련 대상입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게. 그런데 그게 왜 망상입니까. 망상은 끊으려고 해 봐도, 여러분이 죽어도 망상은 끊지 못할 겁니다. 칼로 물 베기지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진 뒤에 공부하시려고요? 어림반 푼어치도 없죠.

용광로에다 헌쇠니 새 쇠니 끊어진 거니, 그냥 모든 걸 갖다가 용광로 불 속에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새 쇠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생각을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넣기만 하라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죠. 작업을 한 작업만 하면 두 작업 세 작업이 다 저절로 돼 나오는데 왜 한 작업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못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라는 게 있고, 아집이라는 게 있고, 내가 안다는 게 있고, 내가 이게 옳다는 게 있고…. 그건 자기 그릇이죠. 종지도 제가 옳다고 그럽디다. "아니, 나도 한몫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지야, 너 뭐를 한몫하느냐?" 그러니까 "아, 간장 담을 때 한몫하잖아!" 그러거든요. 하하하. 하나도 틀림없어요. 이 도리를 알려면 모든 것을, 나조차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라 이겁니다, 나조차도.

왜 무상하다고 하느냐. 부서지고 변해지고 죽고 또는 모두가,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선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인간도 그대로 있질 않아요. 내가 늙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젊었을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거든요. 네? 내가 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 줬다, 그리고 또 남이 잘못했으면 원망을 하고 증오하고 이러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아니 자기가 안 나왔다면 그렇게 상대가 있을까요?

그러니 잘못했다 잘됐다를 떠나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게 바로 나 발견하는 데 아주 극치적으로 열반 길을 그냥 걸어가는, 망상을 끊지 않고 그냥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유가 붙지 않는 자리죠. 이유가 뭐가 붙습니까? 그르다 좋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붙으면 벌써 이 공부 하긴 틀렸어요.

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미래의 정신세계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빈집으로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이 지구라는 우리 집도 주인이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고 우리 몸뚱이도 내 중심이 없고 주인이 없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집도 망가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을 부모한테 받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 영혼이,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한 몸을 받아 가지고선 자기 영혼이 자기 과거에 살던 업적, 인과하고 같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깐 그걸 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신! 어머니의 신, 아버지의 신, 자기의 신 이렇게 해서 삼신이 들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삼신을 받는데 어디로 삼신을 받으러 다닙니까, 글쎄. 나 원 참!

공자님 어머님도 삼신을 받는데, 자기의 육신을, 살을 빌리고 우리 영감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를 이렇게 바칠 테니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6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리 골라 봐도 좋은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마 만날 지금의 유교처럼 믿고 불교는 숭상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돌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6년째 다녀도 소식이 없으니까 '에이, 이깟 놈의 것! 뭐, 내가 아무리 믿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선 포기했죠. 7년 만에 꿈을 꾸니까 그 산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얘야, 네가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는 온통 고르느라고 내가 애를 쓰고 골라 봤는데 지금 7년 만에 그저 쓸 만한 영이 하나 들어왔으니 오너라."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거든요. 마음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심전심으로 그 사람 꿈으로다가 그냥 받은 거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랴사랴 부랴사랴 7년 만에 가서 임신이 된 것이 바로 공자님이시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살면서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마 손살피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것도 끼리끼리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높으면 차원이 높은 영가가 내 자식이 될 것이고, 또는 내 부모가 될 것이고, 만약에 차원이 낮으면, 장 종지라면 장 종지밖에 더 될 겁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이고 배는 배대로 모이고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지게꾼은 지게꾼대로 모이는데, 지금은 지게꾼이 변해서 저 트럭 운전수들 있죠? 그이가 지게꾼이 돼 버렸죠. 그래 트럭 운전수에게 왜 지금 지게꾼 노릇을 안 하고 트럭 운전수를 하느냐고 항거한다면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부처님이 지게꾼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당신은 트럭 얘기를 하느냐고 나더러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지게꾼 얘기를 하지 어째서 트럭 얘기를 하느냐 이 소리죠. 시대가 그만큼 변해서 그 지게꾼이 트럭 운전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게꾼 얘기를 아무리 해 봐도 지게꾼은 지금 많이 없어져서 자라나는 사람들한텐 지게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하신 거를 지혜가 있으면 바꾸어서 써야죠.

어떤 스님께서 세 제자한테 금 한 덩어리씩 주면서 "야, 3년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늘궈라." 그랬더니 그거 없어질까 봐 한 놈은 장 속에다 넣고 그냥 꼭꼭 싸 놓고 있고, 한 놈은 장사를 해서 기껏 늘쿠고 또 한 놈은 그걸 가지고서 이자를 놨구요. 그래서 불린 놈은 상을 받고 장 속에다가 꽁꽁 넣은 놈은 하나도 분지를 않고 그냥 고것만 가지고 있다가 상도 못 받았죠.

이런 이치가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좋은 말씀을 응용해서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알게끔 해 줘야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요, 불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 된 본의도 있고. 중 된 본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불자입니다, 나와 더불어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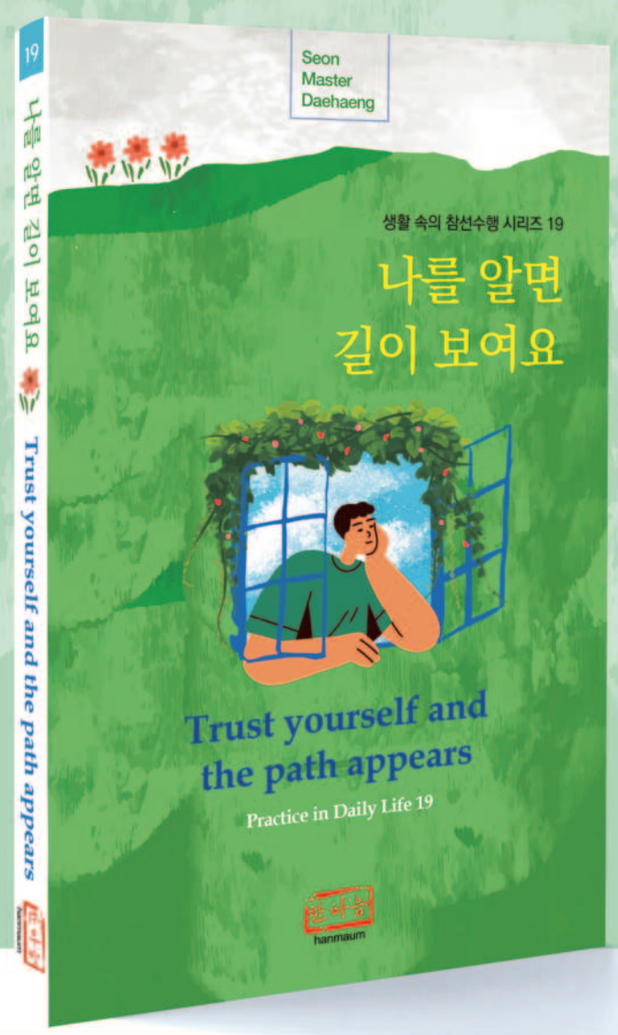
> 남이 잘못했다 잘됐다를 떠나서 자기 탓으로 돌려라.
> 이게 바로 나 발견하는 데 극치적으로 열반 길을 걸어가는,
>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 이유가 붙지 않는 자리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⑧ 40년의 삶, 홀로서기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 걷습니다"

은퇴와 사별, 허망한 삶

상담실을 찾은 김상담 어르신(가명·75)은 겉보기엔 깔끔한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를 지녔습니다. 40대 늦은 나이까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정년퇴직하기까지, 어르신은 자신의 삶을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다가 지금은 딱 끊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빗물로 배를 채우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매를 맞으면서도 가족만은 의식주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다섯 동생의 생계를 책임졌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여행하며 여유를 누리려던 꿈은, 아내가 간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르신에게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삶의 의미이자 기준, 그리고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계속 걷는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어르신은 마치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엇갈린 가족, 희생적인 삶과 원망 사이

하지만 어르신을 더 힘들게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녀들의 차가운 원망이었습니다. 44년간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자녀들은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느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상속을 핑계 삼아 따로 지내는 것을 요구했고, 어르신은 결국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 홀로 지내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자녀들에 대한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치는 아버지는 그저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르신은 지난 세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서 대했다기보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으로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뒤늦은 성찰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명목으로 경제적·외적 역할만 수행했을 뿐, 집 안에서 일어나는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나 갈등 해소 등 내적 역할은 온전히 아내에게만 미루며 회피했던 지난날의 소통 방식이, 결국 가족 간의 깊은 단절을 초래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존을 넘어 나를 마주하기

어르신은 심리검사(MMPI-2) 결과에서도 우울 척도가 매우 높았고, 충동적인 자살 가능성도 우려되는 위기 상태였습니다. 먼저 위로나 조언을 건네기보다 어르신이 지내온 40년의 삶에서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억울함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심리적 개입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냉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무력감, 아내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해 혐오감마저 느끼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아내 사별 후 상실감·자녀들 원망 남아
가족 간 균열 뒤 위로·애도 시간 가져
'온전한 나' 찾아가는 홀로서기의 과정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르신은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 이면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인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고, 아내에게 모든 일상을 의지했던 어르신에게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현실이 아닌 꿈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자는 어르신이 얘기하지 않았던 40년간 진행해 온 탈춤 동아리 활동을 이끌어내며, "그동안 혼자서도 훌륭하게 해내 온 인생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또한 인근 복지관 요리 교실에 등록하고 스스로 삼시 세끼를 챙기는 일상생활에 서서히 적응하게 되면서, 이제 어르신은 비로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장춘몽, 무아(無我)의 지혜로 걷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金剛經)〉의 마지막 사구게(四句偈)에는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꿈이나 환영, 물거품이자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갯불과 같으니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르신은 아내와의 40년 세월을 반추하며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꿈, 영원할 것 같았던 아내와의 인연이라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한 것은, 자신을 원망하는 자녀들과 낯설고 외로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임원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장이라는 책임감 등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허울을 벗어던지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이 걸어야 할 길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길이 아닙니다. 그토록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낸 스스로를 향해 깊은 연민과 자비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 목적지 없이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이 점차 슬픔을 씻어내고 온전한 자신을 찾는 '나를 위한 정진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⑥1 몸이 보내는 적신호 '빈혈'

기운 없고 극한 피로…원인은 빈혈일수도

살랑이는 봄바람에 마음은 설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날씨가 풀리면서 벌써부터 쏟아지는 잠과 나른함 때문에 "춘곤증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계속되고, 어지럼증이나 숨참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계절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운반책인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즉 빈혈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빈혈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항목은 'Hb(헤모글로빈, 혈색소)'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들어 있어 폐에서 받은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해주며, 우리 몸의 장기들은 이 산소를 받아 일을 합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장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손상되거나, 쉽게 피로해지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13g/dL 미만, 성인 여성은 12g/dL 미만이면 빈혈로 판단합니다.

빈혈, 왜 생기는 걸까요?

성인에게 나타나는 빈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영양소 결핍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철 결핍성 빈혈로,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철분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해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대 적혈구 빈혈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경화나 말기 신부전과 같이 만성 질환이 있어도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빈혈은 진단이 아니라 증상에 가까우며, 빈혈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접근과 치료가 달라집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겪는 것은 '철 결핍성 빈혈'인데, 철분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료를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잘 먹었는데도 '어딘가로 새어 나갔거나'입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요즘에는 아무래도 성인에서 발견되는 철 결핍성 빈혈은 단순한 영양 문제라기보다는 '어디선가 피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철 결핍성 빈혈, 체내 출혈 가능성 多
건강 이상 신호일수도, 원인 파악 중요
Hb 수치 낮다면 전문의 상담 받아야

성인 남성의 경우 주로 위나 장 같은 위장관 출혈이 원인이며, 여성은 위장관 출혈과 더불어 생리 과다로 인해 혈액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장관 출혈은 때때로 '위암'이나 '대장암'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빈혈은 단순히 혈색소 수치가 낮은 상태를 넘어, 몸 안의 다른 이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빈혈약을 먹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검사를 통해 왜 빈혈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나도? 빈혈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증상 중 여러 가지가 해당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 충분히 쉬어도 늘 피곤하고 몸에 의욕이 없다.
- 주변에서 피부가 창백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일어설 때 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 손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지거나, 숟가락처럼 가운데가 푹 들어간다.
- 얼음이나 생쌀처럼 특정 음식이 비정상적으로 당긴다(이식증).
- 대변의 색이 평소보다 검거나 붉은빛을 띠는 등 배변 양상에 변화가 있다.

빈혈은 단순히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 심장이 과하게 뛰면서 무리가 가고, 결국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할 만큼 몸을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혹은 이전 검진 결과지에서 Hb 수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세요. 피 한 방울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유은 동국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우리 복지관은 지금 9.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웃 돌봄, 재가장애인의 기반 잇다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봉사자와 재가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일상을 함께하는 '주민활동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3월 27일 열린 재가장애인 주민활동가 발대식 모습.

재가장애인의 일상은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하며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부족할 경우, 일상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활동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봉사자와 재가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정기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을 살피는 지역 기반 돌봄 활동입니다. 현재 15명의 주민활동가가 50명의 재가장애인과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활동가들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이웃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병원 방문, 장보기, 산책 등 혼자서는 어려운 외출을 함께하며 일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2025년 재난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시작된 방문이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고, 주민의 작은 관심이 대상자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민활동가 사업으로 확대해 한층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활동가들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살핀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안전 상태 점검과 계절별 안부 확인도 함께 이뤄지며, 이웃 간 돌봄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활동가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 경험이 이어져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돌봄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주민활동가 사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일상의 빈틈을 지역 주민의 참여로 보완하는 활동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 모여,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공공의 역할에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 때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활동가 사업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돼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는 일상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곽영하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④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선명상

나를 읽게 하는 '그림책 마음명상'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그림책 마음명상'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그림책으로도 명상을 하나요?"였다. 참가자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명상은 어려운 수행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차례 함께하고 나면 표정과 말이 달라진다. 그림책을 읽으러 왔다가, 어느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선명상의 매개로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에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매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바로 그림책이다.

그림책 마음명상은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림과 글을 천천히 따라간다. 유난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춘다. 왜 그 장면이 오래 남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느껴 본다. 마지막에는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를 삶의 자리로 가져가 본다.

마음 알아차리고 분별 내려놓은 채
한 장면 앞에 머물며 생각 비춰 보기
자기 성찰부터 자비로 나아가게 해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그림책을 읽는 행위는 사람을 현재에 머물게 한다. 익숙한 판단을 잠시 멈추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찬찬히 바라보게 한다. 그러는 사이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드러나고, 미처 몰랐던 상처나 바람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이는 등장 인물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며 위로를 얻고, 어떤 이는 잊고 지냈던 마음을 다시 만나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힌다. 그림책은 정답을 주지 않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나의 삶 앞으로 데려다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서적 위로나 심리적 안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림책 마음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분별하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은 채 한 장면 앞에 머무는 연습이 된다. 곧바로 판단하거나 설명하기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가만히 비추어 보는 일은 선명상이 지향하는 자기 성찰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림책을 통해 자기 마음을 더 자세히 보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이 시간이 충정사라는 공간 안에서 이어졌다는 점이다. 남산 자락에 자리한 충정사는 여러 부침을 겪어 왔지만, 최근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그림책 마음명상을 통해 참가자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의 낯섦은 머묾으로 바뀌고, 머묾은 성찰로 이어졌으며, 성찰은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로 확장됐다.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게 되는 변화, 자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읽어내는 변화는 작지만 깊다. 사람들은 그림책을 읽으러 왔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읽고 돌아간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선명상으로 향하는 가장 부드럽고도 단단한 첫걸음일 것이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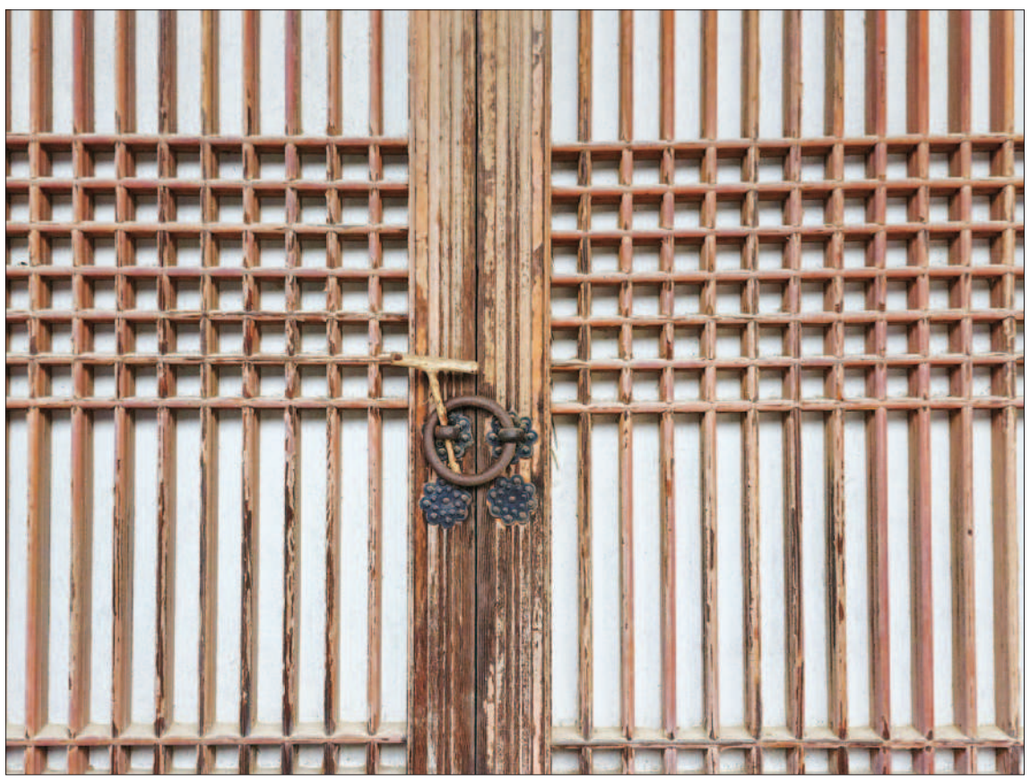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⑯ 어떤 '환대'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 서쪽 '백련당'의 띠살문이다. 살림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문살이다. 그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시선과 걸음을 멈추었다. 문고리 걸쇠에 끼워진 나뭇가지 때문이다. 분명히 잠긴 문인데, 역설적이게도 활짝 열린 듯한 개방감을 느낀다. 내게 개방감이란 나를 '잠재적 강도'로 보지 않을뿐더러 나에게 비밀번호나 열쇠를 건네준다는 느낌을 말한다. 나는 문고리에 걸린 저 나뭇가지를 환대의 메시지로 읽는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묻지 않는다. 물론 성당이나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 비신자가 그곳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사찰 공간은 그렇지 않다. 법석이 펼쳐지는 마당은 외부화된 내부다. 법당 앞문을 개방하면 안팎의 경계가 사라진다. 처마 아래는 평소에도 내외부가 중첩된 공간이다. 비 오는 날 그곳에 서 있으면 느티나무 그늘만 한 챙 넓은 모자를 쓰고 봄비 내리는 숲에 든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의 세계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어른은 없다(여기서 어른이란 순전히 나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앞으로 우산 없이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날이 오면 나는 수덕사 백련당 문고리에 꽂힌 나뭇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관습, 편견, 체면 따위의 꼬챙이를 빼고, 직관에 문고리 주도권을 넘길 것이다. 그렇게 열린 또 다른 세상 나들이를 해 볼 것이다.

손영자 작가



수덕사 백련당.



8개월을 위해 10년을 쌓은 사람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미국 보스턴의 한 억만장자는 생전에 세계 각지에서 최고급 대리석을 모아 10년 동안 초호화 별장을 지었다. 그러나 완공 후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독신이었던 그는 별장을 남길 가족조차 없었다. 결국 그 집은 주정부 소유가 되었고,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를 관광객들에게 공개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건축물에 감탄했지만, 사연을 듣고 나올 때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2m도 안 되는 몸을 겨우 8개월 모셔 두려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구나."

이 이야기는 집착의 허망함을 잘 보여준다.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결국은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해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유리병과 땅콩만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한다. 입구가 좁고 몸통이 큰 병 속에 땅콩을 넣어두면 원숭이는 손을 넣어 한 움큼 쥔다. 그러나 손을 빼려면 땅콩을 놓아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놓질 못하는 것이다. 그 순간 원주민들이 달려들면 원숭이는 결국 잡히고 만다.

우리 중생도 이와 같다. 작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를 옭아매고, 결국은 고통에 사로잡힌다. 불교는 이를 집착이라 부른다. 집착은 곧 고통의 뿌리이다.

연예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디션에 응시한 친구를 따라갔다가 담당 PD의 눈에 띄어 발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심의 힘이다. 뭘 바라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바라는 마음 비우면 비로소 공덕 성취
감사·무심의 삶이 지혜 이끄는 수행 돼
제행무상 품고 '있을 때 잘하는' 불자 되길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실행론〉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구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기 심중의 허물을 고치지 못하고, 오직 욕심에 사로잡혀 서원만 충족하려 한다면 어찌 좋은 공덕을 바라겠는가."

공덕은 무심으로 행할 때 비로소 성취된다.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공덕은 줄어든다.

몇 해 전 배우 황정민 씨는 영화대상 주연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스태프들이 차려 준 진수성찬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겸손과 감사의 본질을 드러낸다. 나 혼자 이룬 성취는 없다. 수많은 인연과 노고가 모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불교적 수행은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지혜 있는 현자들은 말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한 순간, 무탈하게 지나온 한 해, 잠든 가족의 얼굴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의 대상이다.

불교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는' 삶이 중요하다. 감사와 무심으로 살아갈 때, 일상은 곧 수행의 장이 되고, 그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잘된 일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다. 나날이 감사하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행무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을 때 잘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

선거, 정치에 참여할 유일한 통로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벚꽃을 시작으로 봄꽃이 화사하게 피나 싶더니 금세 초여름 날씨가 됐다. 그러다 4월 중순에 난데없는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겨울옷을 모두 세탁해서 넣어둔 터라 당혹스러웠다. 이번 한파는 우리나라 상공 5㎞ 부근으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 유입이 원인이었다.

원인을 더 들여다보면 북극권의 기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2~3배 높아지면서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한파특보는 2005년 한파특보 DB가 마련된 이후 가장 늦은 한파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16일에 가장 이른 한파주의보가 있었다. 가장 이르고 늦은 한파특보의 기록은 조만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우리 몸에 이상증세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사다. 봄기운이 완연해서 꽃봉오리를 활짝 피웠다가 한파를 겪으며 냉해를 심하게 입게 되면 그해 농사는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가을 수확을 앞둔 시기에 이른 한파특보 역시 수확량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는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후 문제를 식탁의 문제로 잘 연결 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가는 자동차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늘날 농업은 석유 기반 시스템이다. 트랙터, 콤바인, 관개 펌프 등은 대부분 디젤을 사용하고 있어 석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필름, 멀칭 필름에 이르기까지 농사에 석유를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농업이 석유 소비로 빚어진 기후 위기로 또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는 끝없는 악순환의 루프다.

석유 의존 농업 기후 위기 부메랑 맞아
온실가스 규제 유럽, 야간 조명 4% 감소
선거 전 환경 위기 막을 탄소 공약 살펴야

얼마 전 실제로 지구의 밤이 해마다 2%씩 밝아지고 있다는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미국 코네티컷대와 독일의 보훔루르대의 공동 연구진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 기간에 16%나 밝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해마다 평균 2%씩 밝아진다는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모든 나라가 밝아진 게 아니다. 중국, 인도 등 경제 성장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나라의 경우는 해마다 더 밝아지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유럽의 야간 조명은 4%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자정 이후 가로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친 결과 33%나 감소했다. 에너지전환과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야간 조명 감소율이 22%나 됐다.

우리나라도 차량 2부제 시행만으로는 미흡하다. 영업이 끝난 가게며 빌딩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환하게 전등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야간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정책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선거는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후보들의 공약에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바로 그런 행동이 우리의 일상을 가장 늦은 한파와 가장 이른 한파의 기록 경신을 막아줄 유일한 대안이라 믿기에.

社 說

'제2건학' 변화의 씨앗에서 도약의 길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2021년 '제2건학'이라는 원대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학교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며 건학이념 구현을 실질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 개선이나 사업 확대를 넘어, 불교정신이 대학 공동체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건학위원회 출범 당시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종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불교적 가치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자성, 그리고 대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동국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선언은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세워진 이정표였다. 그리고 지난 5년은 선언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시간이었다.

교육·전법 등 성장세…건학이념 구현
불교정신 일상화, 한국불교 동력 되길

가장 괄목할 성과는 '대학 전법'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불과 5년 전 160여 명에 불과했던 불교동아리 회원이 이제 8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한 사실은 상징적이다. 또 장학금을 매개로 사찰과 학생을 잇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과 수천 명의 학생이 환희심 속에 계를 받는 '영캠프'는 신행과 복지, 포교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종교와 교육이 분리된 영역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두 영역이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캠퍼스 문화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합장 인사와 공양 기도, 팔정도 참배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정이 연등으로 장엄되는 풍경은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요된 제도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자발적으로 변화했기에 가능한 결과다. 불교가 종교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건학위원회는 교육과 의료, 글로벌 등 전 분야에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문화유산학과와 한국음악과 등 건학이념을 반영한 학과 신설과 교과목의 표준화는 불교적 가치가 학문의 토대 속에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하 9개 학교 법당을 일신해 청소년 포교의 기반을 다진 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시선은 미래로 향한다. 지난 5년이 변화의 동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청년 불자들이 일시적인 흥미를 넘어,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때 '제2건학'의 진정한 가치는 완성될 것이다.

동국대의 역사는 선지식들의 원력으로 일궈온 교육불사의 기록이다. '제2건학'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지만, 지난 5년의 성과는 그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동국대가 이 흐름을 더욱 성숙하게 이어가며 대학을 넘어 사회와 세계로 불교정신을 확산해 나갈 때 '동국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대원력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사)대한불교금강종

圓 寂

대한불교금강종 제2세 종정 예하 무학당 대종사께서 입적하셨습니다. 2026년 4월 7일 오전 10시에 입적하셨으며, 사리 84과가 수습되었습니다.

5월 25일 오후2시 대구 인각사에서 **49재를 회향**하오니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대한불교금강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대승종은 1988년 5월 28일, 도암선사께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 각행원만(覺行圓滿)을 근본교리로 창종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본 종단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대승보살행을 실천합니다.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이며, 소의경전은 『법화경』·『금강경』·『아미타경』·『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경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전국에 350여 사찰과 750여 명의 승려 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수행과 중생 교화에 뜻을 둔 신심 깊은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스님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대한불교대승종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재질 : 인조가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재질 : 인조가죽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